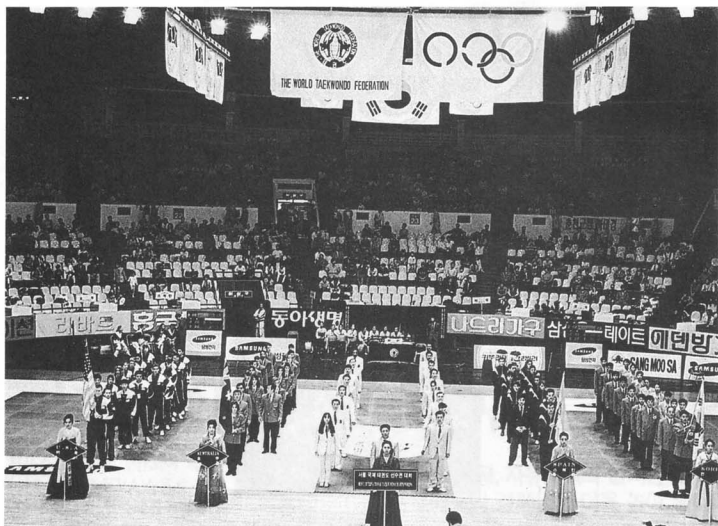


2천년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의 의지 펼친 태권도 웨스티발



개회식 모습

IOC 100주년 기념 서울 국제 태권도 선수권대회
(’94.4.22~23, 장충체육관)

IOC 위원 6명 대회 참관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을 위한 IOC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국제 태권도선수권대회가 4

월 22일과 23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스페인과 차기 올림픽 개최국인 미국, 호주 등 4개국이 초청되어 친선 경기로 펼친 이번 대회는 오는 2천년 시드니 올림픽의 경기 종목 채택을 위하여 IOC 프로그

램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특별히 초청한 가운데 태권도를 관람토록 함으로써 태권도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Sinan Erdem(터어키), Kevin O’Flanagan(아일랜드), Walther Troeger(독일), Basher Attarabulsi(리비아), Shun Ichiro Okano

(일본) 등 5명의 IOC프로그램 분과위원회 위원과 칠레의 Sergio Santandere IOC위원 등 6명의 IOC위원이 경기를 참관하였다.

대회가 벌어진 장충체육관에는 태권도 대회 사상 기록적이라 할만큼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워 이번 대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또한 김운용 IOC부위원장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 대회장인 김집 올림픽채택 추진위원장(전 체육부장관), 김용래 대회조직위원장(전 서울시장), 유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이사장, 장주호 경희대 체육대학장, 이강평 KOC 명예총무와 태권도의 원로급 인사와 각 시도의 고단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 성황을 이루며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에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4월 2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김용래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 김집 대회장의 대회사,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선수선서, 심판선서가 있었다.

식전, 신후행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격조높은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었는데 국악예고의 사물놀이, 국가대표 성인 시범단과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염광여자정보산업 고등학교의 고적대 퍼레이딩이 흥겹게 펼쳐졌다.



IOC컵을 수상한 한국대표팀 강웁식 단장

첫날 6체급 석권하며 중주국 위용 과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을 비롯한 스페인, 미국, 호주 대표 선수들은 세계 최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경기력을 펼치며 경기장을 열기로 달아오르게 했다.

첫날 경기는 남녀 편급, 밴텀급, 라이트급, 미들급 등 8체급 경기가 펼쳐져 한국은 남자부 편급 석운용(용인대), 밴텀급 조진호(한체대), 라이트급 박세진(영천시청) 등 3체급과 여자부 편급 김진성(한체대), 라이트급 박경숙(경희대), 미들급 이선희(용인대) 등 3개 체급에서 각각 우승 총 6개의 금메달과 은 1, 동 1개를 따내며 중주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스페인인 남자 미들급에서 93년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

회 동메달리스트인 존 디아스가 호주의 워렌 한슨을 2:0 판정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호주는 여자 밴텀급 경기에서 93년 세계선수권대회 및 94년 아시아선수권대회 호주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로렌 번즈가 결승에서 한국의 김은숙(용인대)을 맞아 막상막하의 실력을 발휘하며 2:2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경기에서 편급의 남자부 석운용(용인대)은 결승전에서 미국의 라이보를 맞아 주특기인 원발 돌려차기로 몸통 공격을 성공시키며 3:0 판정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부의 김진성(한체대)은 호주의 엘리슨 부록스를 맞아 뒷차기 등 월등한 기량을 발휘하며 5:0 판정승을 거두었다. 김진성은 '90년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편급 2위,

'91년 제3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핀급 동메달을 따낸바 있다.

밴텀급의 남자부 조진호(한체대)는 주특기인 나래차기 등으로 스페인의 가르리엘 페레츠를 4:2 판정으로 이겼다.

라이트급의 남자부 박세진(영천시청)은 스페인의 마르코스 코레도이라를 3:2 판정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박세진은 서울체고와 경희대를 거치며 '90년 제3회 월드게임 태권도 라이트급 금메달, '92년 제3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금메달, '93년도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금메달 등 세계 라이트급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자부의 박경숙(경희대)은 호주의 자이 자예를 맞아 2:2 동점에 우세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미들급 여자부의 이선희(용인대)는 주특기인 뒷차기로 몸통을 공격하며 미국의 바바라 건켈을 1:0 판정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종합 1위로 IOC컵 수상, 스페인 2위, 호주 3위

둘째날 경기는 남녀 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헤비급 경기가 펼쳐져 한국은 여자 플라이급의 최재숙(용인대), 여자 헤비급 정명숙(혜성여고), 남자 헤비급 하태경(춘천군청)이 각

각 금메달을 따내며 금 3, 은 1, 동 4개를 추가, 총 금 9, 은 2, 동 5개로 종합 1위를 달성, IOC 컵을 수상했다.

스페인인은 남녀 플라이급에서 각각 패권을 차지하며 금메달 2개를 추가, 총 금 3, 은 6, 동 7개로 종합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남녀 웰터급을 석권하며 총 금 3, 은 3, 동 10개를 획득한 호주에 돌아갔다.

미국은 남자 페더급 경기에서 데이비드 강이 한국의 김동현(경희대)을 우세승으로 이기고 패권을 차지, 미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미국은 총 금 1, 은 5, 동 10개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날 플라이급 경기에서 남자부의 유상문(한체대)은 4강전에서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플라이급 패권은 '92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93년도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금메달리스트인 스페인의 세스밀로에게 돌아갔다.

여자부의 최재숙(용인대)은 스페인의 올라 산타마리아의 저돌적인 공격을 교묘하게 차단하며 1, 2회전에서 뒷차기로 몸통을 강타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페더급은 남자부 김동현(경희대)이 미국의 데이비드 강에게 우세패 당하며 은메달, 여자부 윤명숙(용인대)은 4강전에서 미국에 3:2 판정패 당하며 동메달, 스페인의 이도아 사라구에타가 패권을 차지했다.

웰터급은 남자부 김동민(한체대)과 여자부 김소연(경성여실고)이 모두 4강에서 탈락한 반면 호주가 2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최고 중량급인 헤비급 남녀 패권은 한국의 하태경(춘천군청)과 정명숙(혜성여고)이 미국의 옴프레이와 스페인의 디미로



한국의 전통 예술을 선보여 흥을 돋군 개회식 식후행사



합찬 발차기 모습

페레즈를 각각 압도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며 대미를 장식했다.

올해 9월 파리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 태권도 올림픽 종목 채택 판가름

이번대회는 2천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를 경기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막바지 노력의 일환으로 IOC프로그램 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태권도 경기의 우수성 및 경기종목 채택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치루었다고 할 수 있다.

2천년 올림픽에서의 태권도 종목 채택은 IOC프로그램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IOC집행위원회에 상정, 승인을 거쳐 IOC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5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프로그램 분과위원회에서 태권도 뿐만 아니라 9개 스포츠 종목의 보고회가 있었는데 IOC프로그램 분과 위원회의 투표에서 11:9로 태권도 종목 추천이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반대표를 던졌던 IOC프로그램 분과위원회 위원 중 2명만 더 태권도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무난히 태권도 IOC프로그램 위원회의 추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은 오는 9월 4일과 5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이번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는 태권도의 올림픽 경기 종목 채택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고 본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1월 올림픽 채택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집 전 체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기획, 운영, 재정, 홍보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태권도의 올림픽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어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이라는 지상과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표선수단

- ▲ 단장: 강원식(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 남자부코치: 임순길(도산체육관 사범, 경주중코치)
- ▲ 여자부코치: 오상운(수원 효원고 코치)

(남자부)

- 핀 급: 석운용(용인대·1위)
- 플라이급: 유상문(한체대·3위)
- 밴 텀 급: 조진호(한체대·1위)
- 페 더 급: 김동현(경희대·2위)
- 라이트급: 박세진(영천시청·1위)
- 웰 터 급: 김동민(한체대·3위)
- 미 들 급: 정주석(상무·3위)
- 헤 비 급: 하태경(춘천군청·1위)

(여자부)

- 핀 급: 김진성(한체대·1위)
- 플라이급: 최재숙(용인대·1위)
- 밴 텀 급: 김은숙(용인대·2위)
- 페 더 급: 윤명숙(상명여대·3위)
- 라이트급: 박경숙(경희대·1위)
- 웰 터 급: 김소연(경성여학교·3위)
- 미 들 급: 이선희(용인대·1위)
- 헤 비 급: 정명숙(경희대·1위)

20년만에 부활한 5명 단체전 경기

제2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94.6.13~17, 부산 구덕 체육관)

풍생고 · 한체대 · 국군체육부대 우승



29년 전통의 대통령기전국단체대항대회에서, 고등부에서는 풍생고가 첫 우승을, 대학부와 일반부에서는 한국체대와 상무팀이 각각 우승기를 제탈한다는 감격을 맛보며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통령기대회는 전국에서 각

기 소속팀의 명예를 안고 출전한 45개팀 225명의 우수선수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는데, 특히 이번 대회는 20년만에 부활한 5명단체전 방식으로 인해 더욱 박진감있고 열기띤 대회로 평가되었다.

경기개시 10분전에 제출토록한 대전순서(오더) 때문에 각팀

코칭스텝들의 머리싸움이 돋보인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는 금년들어 중고연맹단체전을 우승하며 신흥강호로 부상한 풍생고가 대통령기까지 생취하며 금년 2관왕의 자리에 올랐다.

대학부의 홈팀인 동아대와 전통의 강팀 한국체대, 태권도학과와 금지를 가진 경희대, 용인대, 다크호스 청주대, 관동대가 주목을 받았다. 금년도 단체전 강팀으로 꼽히던 동아대와 용인대가 청주대와 경희대에 패퇴함으로써 한국체대가 어렵지 않게 우승을 하며 2년만에 우승기를 탈환하였고, 일반부에서는 서울지하철경찰사가 불참함에 따라 노련미의 춘천군청과 패기의 상무가 결승에서 붙어 상무팀이 4년만에 우승기를 다시 가져가는 감격을 맛보았다.

▲ 고등부

- 우승: 풍생고등학교
- 준우승: 송곡고등학교
- 3위: 성동고등학교
- 감투상: 부산체육고등학교
- 장려상: 동천고등학교

▲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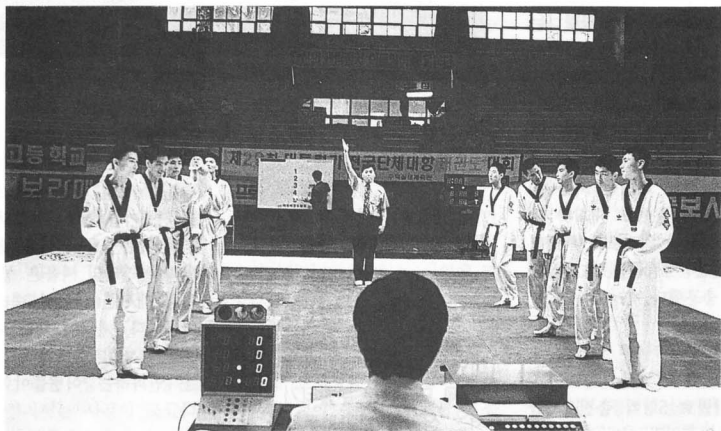
- 우승: 한국체육대학교
- 준우승: 청주대학교
- 3위: 경희대학교
- 감투상: 관동대학교

▲ 일반부

- 우승: 국군체육부대
 - 준우승: 춘천군청
 - 3위: 대전시동구청
- (선수명단은 「행사기록」에)

작은 선수가 큰 선수들을 이기는 이번 속출

서완석 / 국민일보 체육부 기자



5명 단체전 경기로 펼쳐져 흥미진진하게 진행된 대통령기대회

1. 글을 시작하며

태권도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운데 어린시절, 큰애들한테 얻어맞지 않으려고 시작한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다.

얼마동안 수련을 계속하게 되면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시달

리던 어린이들도 큰애들을 꺾을 수 있는 운동,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매력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접어들어 태권도가 대학진학의 방편이 되고 체급별 경기로 자리를 잡으면서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이기는」 경기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

다.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그 신비감을 잃어 버리고 지나치게 스포츠화 한 탓이었다.

그런 점에서 6월 13일부터 5일간 부산구덕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대통령기단체대항 전국 태권도대회는 잃어버린 신비감을 아스라히 되살릴 수 있는 대

회로 주목을 끌었다.

체급에 관계없이 각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5명을 출전시켜 오더에 의해 맞겨루기를 하는 대회.

원래 이 대회는 창설 당시 이 같은 방식으로 실시돼 왔으나 지난 74년 대회부터 개인전 합산방식에 의한 단체전으로 파행적으로 실시돼오다 실로 20년만에 명실상부한 단체전 방식으로 부활한 셈이었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경기장 폭력사태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잡혔다는 협회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더에 의해서는 작은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대결할 수도 있는 대회.

어쨌든 이번 대회는 최근 20년동안 벌어진 어느 대회와 달리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확실히 보고 싶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2. 대회

각 팀별로 5명씩 출전, 체급 구분없이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헤비급(83kg이상)과 핀급(50kg 이하)선수들의 맞대결처럼 체급 차이가 많은 선수들간의 경기는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주먹을 쓰는 복싱의 경우 체급차이는 곧 펀치력의 차이로 나타나 체중차이가 30kg이상 차이가 나는 경기는 성사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먹사용이



체급차이가 많은 선수들간의 경기는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0년전 이 대회가 개인전 합산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판정 불복으로 인한 경기장 폭력이었기 때문에 모처럼 단체전이 제 모습으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심판들의 공평무사한 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제한적이고 각종 보호장구가 완비된 태권도의 경우 체급차이로 승부를 점칠 수는 없다는게 당초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서에서처럼 대부분 다윗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체급이 각기 다른 선수들이 머리 하나가 큰 선수들을 연파하는 이변들이 속출했다.

특히 26개팀이 출전한 고등부 경기는 경량급이 중량급에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명승부가 속출했다. 밴텀급(54~58kg)과 페더급(58~64kg)선수들이 주축이 된 각팀들은 미들급(76~83kg)과 헤비급 선수들을 연파하며 팀승리를 주도하는 현상들이 벌어졌다.

송곡고의 김남수(밴텀급)는

순천공고 박준택(헤비급)과의 고등부 2회전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판정승, 팀승리를 확정하였고 성동고의 김준의(페더급)도 남주고의 윤성찬(헤비급)을 물리치고 역전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선인고의 최태호(라이트급), 한성고의 정충민(밴텀급)도 자신보다 20여kg이나 무거운 헤비급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체중차이가 경기력의 차이가 아님을 입증했다.

풍생고는 아예 헤비급과 미들급 선수들을 오더에서 제외하고 페더와 라이트급 선수들을 주축으로 내세워 중량급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들을 연파하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풍생고의 이경배코치는 『경량급 선수들이 순발력과 지구력에서 중량급 선수들을 앞서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는 이들이 유리하다』면서 이번 대회 결과가 우연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량이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대학·일반부의 성인들 간의 경기에서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올림픽을 2연패한 하태경(헤비급·춘청군청)이 상부의 김현철(페더급)에 완패한 것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량급 선수들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리드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파괴력이 중시되지 않는 현행 태권도 채점방식하에서는 스피드에 의한 선제득점을 노리는 기술개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었다.

명승부에 걸맞게 경기장은 매 경기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다른 체급인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단체전이 주는 열기까지 가세해 드라마같은 경기가 연일 벌어졌다.

3. 개선방향

경기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단체전을 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제까지의 태권도경기가 사실상 개인전으로만 치러져 한술밥을 먹는 선수들이라해도 팀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기 체급에서 메달을 따면 제 할일을 다했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태권도인들 사이에 널리 팽배해 있는 것도 이같은 경기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전을 자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원로들의 충고다.

이와함께 엔트리 5명으로 제한돼 있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경기중 부상선수가 많지 않아 이번에는 별탈없이 넘어갔지만 후보선수를 인정치 않는 대회규정은 잘못됐다는 불만들이 일선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3명 정도의 후보선수를 엔트

리에 제출토록 해 매경기마다 8명 내에서 출전선수 5명을 구성토록 한다면 좀 더 많은 선수들에게 특기자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회당 3분으로 돼있는 경기시간을 예선경기는 2분으로 줄여 대회진행을 스피디하게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민속씨름의 단체전은 단판제로 하는 것도 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이번대회를 취재하면서 단체전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판 판정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20년전 이 대회가 개인전 합산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판정 불복으로 인한 경기장 폭력이었기 때문에 모처럼 단체전이 제 모습으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심판들의 공평무사한 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한 판정을 했다고들 하지만 이번 대회 일부 경기에서는 판정시비로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것은 겉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홍중수 부회장에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태권도 신인 유망주 탄생

94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94.4.11~16, 올림픽 제1체조경기장)

태권도 신인 선수들의 등용문인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올림픽 제1체조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749명, 고등부 958명, 대학, 일반부 51명 등 총 1758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참가 규모를 보임으로써

단일 종목 사상 최대의 열기를 보여주는 가운데 우승의 고지를 향한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었다.

대회 6일중 3일간은 모두 예선전으로 치러졌으며 4일째 되는 4월 14일에야 중등부가 전체급 8강전부터 경기를 시작, 각 체급 우승자를 배출하였다.

고등부는 958명의 선수가 출전, 체급당 10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몰리치고 우승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4월 14일 11체급의 입상자가

가려진 중등부 결승전은 선수들의 대전 열기 뿐만 아니라 팀별 응원전도 치열했다.

핀급의 손용복(당곡중)은 대회 첫날 상무중의 김기호를 1:0 판정승 거두고 2차전에 진출해 경북체중의 박성우, 은행중의 박동선, 상무중의 최연호를 차례로 이기며 8강전에 진입했다. 8강전에서 곡성중의 박성규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핀급 입상권에 들어갔으며 준결승전에서 사당중의 김정훈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 판교중의 구유희

를 맞아 판정승으로 핀급 금메달을 목에 걸며 태권도 신인 유망주로 탄생했다.

이밖에 플라이급은 용곡중의 조익래, 밴텀급은 순천이수중의 김선률, 페더급은 동성중의 정세영, 라이트급은 단대부중의 윤현식, 라이트 웰터급은 태성중의 남연식, 웰터급은 서울체중의 강대리, 라이트미들급은 부천동중의 조원철, 미들급은 구월중의 윤명철, 라이트 헤비급은 인천 효성중의 이권일, 헤비급은 여수중의 홍현욱이 예선부터 결승까지 7, 8번의 대전을 차례로 이기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고등부의 핀급 경기에는 203명의 선수가 출전, 이번 대회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천안농고 2학년생인 서상훈이 결승에서 8번째 경기를 맞아 체력이 떨어진 대전체고의 정우학을 1회 4:1, 2회 2:0, 3회 1:0 등 총 7:1 판정승으로 가볍게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고등부 웰터급 경기에서는 리라공고의 방영선과 남주고의 고도형이 결승전에 올라 1회 2:1, 2회 0:1로 2:2 동점을 이룬 가운데 3회전에 올라 금메달을 놓고 각축전을 펼쳤으나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가운데 2:2 동점으로 경기를 마쳐 리라공고의 방영선이 우세승을 거두었다.

그밖에 플라이급은 박왕기(개금고), 밴텀급 백주용(강화고), 페더급 하태호(서울체고), 라이



그동안 길고 닳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는 선수들

트급 정환백(태성고), 미들급 남규영(부산체고), 헤비급 심운섭(정명고)이 그동안 닳아온 기량을 발휘하며 체급별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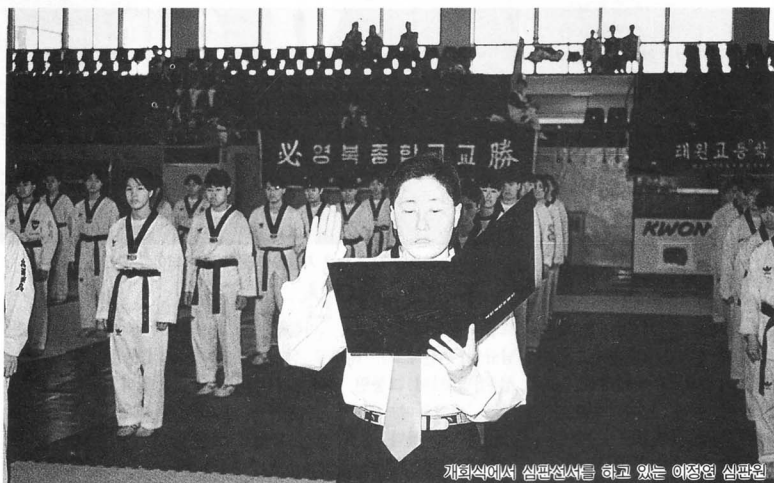
일반부 및 대학부 경기 중 플라이급은 한라전문대의 김홍수가 충호체육관의 김남수를 맞아 1회 4:2, 2회 1:0, 3회 4:2 등 막상막하의 기량으로 승리를 점치기 어려운 가운데 김홍수가 3회말 뒤돌려차기로 득점을 추가, 9:8로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라이트급 경기에서는 한라전문대의 현정훈이 대전실업전문대의 명재일을 맞아 1회 2:1, 2회 1:1, 3회 1:2 동점을 이루

는 막상막하의 기량을 겨룬 끝에 총 4:4 동점, 현정훈에게 우세승이 선언되었다.

그밖에 체급 우승은 핀급 강정훈(춘천군청), 밴텀급 강근배(한라전문대), 페더급 박광현(부산시협회), 웰터급 김광호(대전실업전문대)가 각각 차지하였다. **태권도**

신인 선수들, 전·현 국가대표 누르는 이번 속출



개회식에서 심판선서를 하고 있는 이정원 심판원

94년도 전국 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94.5.19~20, 국기원)

195명의 여자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된 94년도 전국 여자 개인 선수권대회는 전, 현 국가대표 및 신인 선수들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신인선수들이 신장의 우세와 득점과 연결되는 태권도 기술을 발휘하며 현 국가대표들을 누르고 정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헤비급의 김윤경은 현 국가대표 1진으로 올해 1월 제1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금메달리스트인 김태희(성신여대)를 2회 RSC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 차기 헤비급 유망주로 관심을 모았다.

플라이급의 박현기(고양종고)는 94국가대표 편급 1위로 지난 1월 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서 편급 동메달을 따낸바 있는 현 국가대표 양소희(한체대)를 1회 뒷차기로 1득점, 2회 두 선수 위력적인 공격을 주고 받는 가운데 4:2 득점, 3회 1:2 등 총



여성심판원이 승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고 있다.

6:4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신인 유망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한편 현 국가대표 라이트급 1위자로 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강해은(경성여실고)은 영복중고의 전미영을 주특기인 뒷차기로 매회전 마다 2득점을 올리며 3회 6:0인 가운데 경기 종료전 RSC승을 거두었다.

그밖에 핀급의 최영아(청구상고)는 결승에서 정재은(자양중)으로부터 가볍게 기권승.

밴텀급의 함진희(리라공고)는 자양중의 최윤희를 맞아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승리를 점치기 어려운 가운데 4:4 동점을 이룬 끝에 함진희 우세승 거두고 패권 차지.

웰터급의 조미례(리라공고)는

부평여상의 강혜진을 맞아 1:1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들급의 임병은(태원고)은 뒷차기 공격 등으로 1회 3득점을 올리는 우세한 실력을 발휘한 가운데 2회 RSC승을 거두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지켜본 일선 코치들은 여자 선수들이 신장이나 체력은 많이 향상된 반면 기본기가 완벽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득점과 연결되는 기술발휘에만 급급해 기술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대회 분위기 일신

각종 태권도대회에 여성 심판

이 활약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이번 대회는 심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대회가 진행됨으로써 대회 분위기를 일신시켰다.

21명의 심판으로 구성된 여성 심판원들은 대회에 앞서 한달전부터 심판 수신호 등을 심판분과위원회로부터 지도받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정으로 태권도 대회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앞장섰다.

이번 대회에 심판으로 활약한 심판원은 전 국가대표 코치였던 박필순을 비롯해 양인옥, 윤명미, 서영애, 변경숙, 신은주, 김복녀, 김혜연, 최선미, 오경란, 이정아, 손정민, 박은미, 정연실, 박수현, 박경희, 한점희, 한옥미, 황선영, 안옥주, 이정연 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태권도**

경희대, 여자부 5체급 석권

제21회 전국대학개인대회 겸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대회
('94.5.6~7, 수원실내체육관)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된 남녀선수들과 대학연맹 임원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맑고 화창한 날씨속에 수원실내체육관에서는 제21회 전국대학개인대회 겸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대회가 5월 6일과 7일 이틀간 개최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노련하며 완숙해지는 대학연맹 임원들

의 치밀한 대회준비 및 경기진행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되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 점검 등으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치러졌다.

회장단 및 내외 귀빈의 입장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오는 11월에 개최될 제4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한국대표선수단은 4연패 필승을 다짐하였다. 식

후 공개행사로는 용인대학의 대회축하 시범이 펼쳐져 많은 참가자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대회개최를 위해 후원해 주신 황광철 경기도협회장과 안종웅 전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대학연맹 전무이사로 수고하신 최영렬교수(경희대)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끝이어 펼쳐진 경기는 300여 명의 출전 선수들의 열와 함성이 수원실내체육관을 진동 시켰다.

첫째날에는 세코트에서 펼쳐져 숨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경기가 진행 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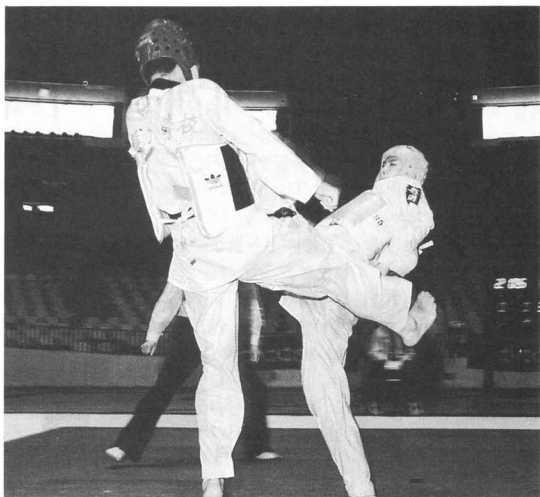
플라이급 석운용선수(용인대)와 여원재선수(계명대)의 승부는 2:2의 팽팽한 접전끝에 석운용선수가 우세승으로 4강에 진입하였다.

해비급 경기에서는 하종선선수(조선대)와 백태준선수(충남대)와의 경기에서는 첫날 경기를 마무리 하면서 격렬한 난타전으로 1회부터 시종 치열한 접전끝에 결국 하종선선수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둘째날, 우승을 향해 숨가쁘게 경기가 진행되어 갔다. 핀급에 최만용선수(한체대)와 전재필선수(동아대)의 경기는 서로가 주고받는 난타속에 최선수가 1,2회의 원발 앞돌려차기 득점에 이어 오른발 앞돌려차기로 득점을 성공시켜 우승의 영예를 안고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이어서 플라이급 윤종일선수(동아대)와 고동완선수(한체대)의 경기는 1,2회 접근탐색으로 무득점, 3회에 윤선수가 앞발 받아차기와 빠지며 뒷차기를 성공시켜 동아대의 함성을 높였다.

여대부 밴텀급 원선진선수(경희대)와 김은숙선수(용인대)의 경기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로 시종일관 계속된 공격을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친 선수들

펼친 원선진선수의 우세승으로 돌아갔다.

이번대회는 역대 대회와는 달리 남대부의 전력이 거의 평균화되어 어느 학교도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여 한국체대 2명, 용인대학 2명, 청주대학 2명, 조선대학 1명, 동아대학 1명이 체급별 우승을 차지했다.

여대부는 역시 경희대학의 돌풍앞에 나설자가 없었다.

경희대에서 5체급을 휩쓸며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여자선수출전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번대회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낸 좋

은 결과를 남겼으며 새로이 전무이사로 선출된 손천택교수(인천대)의 남다른 열정과 성의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본다. **한인**

〈지병윤 대학연맹 편집위원〉

태권도로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



김 덕 기/스포츠서울 체육2부 부장

태권도가 종주국에서는 냉대(?)받는 이유는

지난 5월20일께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고청탁 전화를 받은 필자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짧은 기간 -정확하게 1년 9개월- 명색이 태권도 담당기자 이면서도 협회사무실은 물론 태권도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으로 태권도 기사다운 기사를 써본 기억조차 없는 필자를 잊지 않고 있다는 뿌듯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욱 펜을 들기가 겁이 났고 이로인해 사실 며칠간 고민을 해야했다.

협회에서 지정해준 마감일은 5월31일. 그러나 필자도 기자들의 습성대로 1주일을 허송하다 마감 하루 전인 5월30일 원고지와 펜을 잡았으니 좋은 글이 되기는 애시당초 그런 것 같지만 1년9개월동안 태권도 담당을 하면서 느낀 것을 두서없이 편하고 쉽게 쓰기로 했으니 이 글을 읽는 분이 편하고 부담없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태권도 담당기자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역시 “미국은 CIA로 세계를 지배하고 한국은

태권도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다.

93년8월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를 취재할 때 어느 재미 태권도인으로 부터 이 말을 듣고 태권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태권도가 국내에서는 아직도 냉대(?)를 받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기인 태권도가 종주국에서 냉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누구의 탓일까?

필자는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었으나 지금도 그 의문은 속시원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사실 그것은 사실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누구도 속시원히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기라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태권도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태권도인 스스로 져야할 것이다.

태권도는 태권도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대부’라 불리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윤용 대한체육회장은 필자를 만날때 가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엇이란 거져 얻으려한다”고 태권도인들의 태도에 못마땅해 하곤 했다.

김총재는 특히 태권도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대사인 태권도 올림픽 채택문제만 하더라도 태권도인 누구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총재의 이같은 지적은 결국 태권도인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오늘날 태권도를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영향력있는 종목으로 육성한 모든 공이 김총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총재의 길은 그들로 오히려 국내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이다.

이문제에 대해 김총재는 국제적인 일은 자신이 한다손치더라도 국내 태권도 활성화는 태권도인의 몫이 아니냐는 반론이다.

필자는 누구의 말과 누구의 뜻이 옳고 그른지 따지자고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태권도인들은 김윤용총재 지적대로 태권도 발전에 피동적이고 소극적이지는 않은지, 김총재는 그들이 너무 길게 드리워져 태권도인들이 운신하기에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을 뿐이다.

4백만 유단자가 힘을 모아 세계태권도인들의 성지 국기원 재건해야

필자는 ‘국기원’이란 세글자가 화제에 오를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곤 했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인들이 성지로 인식하고 있을만큼 그야말로 성스러운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기원은 어떤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것도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다 이제는 그나마 연간 엄청난 돈을 서울시에 내고 빌려 쓰는 처지가 돼버렸다.

지난해 미국에서 많은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

도 성지 순례’란 이름으로 한국을 찾은 적이 있었다. 이들은 우선 경주의 화랑교육원에서 한국문화를 한차례 접한뒤 꿈에 그리던 태권도의 성지 국기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은행가와 변호사, 교사 등 미국사회에서는 지도층 인사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들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의 얼굴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국기원을 한바퀴 돌아본 이들의 모습은 도착했을때와는 다름을 느끼게 했다. 일부는 실망하는 듯한 얼굴도 보였다.

태권도 성지 순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국기원을 성지로 생각하고 찾는 세계각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을 실망시킬 것인가.

평양에 ‘태권도 전당’이 세워졌음을 감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기원다운 국기원을 세워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올해부터 국기원 임대료까지 받는 처지에 그 같은 기대는 연목구어일 뿐이다.

국내 태권도 유단자가 4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단자 4백만명이 힘을 합하면 번듯한 국기원 하나쯤은 쉽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야구인들의 성금 1억원이 잠실야구장을 세우는 종자돈이 됐다는 일화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4백만 유단자가 ‘국기원 건축성금’으로 1만원씩 쾌척한다면 그 액수는 자그마치 400억원이다. 2만 5천원씩이라면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된다. 그래서 필자가 그동안 태권도인들을 만날때 해온 소리가 허튼소리고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하고자 한다.

4백만 유단자 들이여! 1만원씩 쾌척하십시오, 여러분들의 1만원이 국기원의 주춧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결된 힘을 보일때 국민들도 더 이상 태권도를 냉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권**

태권도와 운동상해

목 차

- ① 태권도와 에너지 시스템
- ② 무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③ 유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④ 유연성 향상과 스트레칭
- ⑤ 태권도와 운동상해

태권도를 비롯하여 모든 운동은 최대의 효과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85호부터 연재되어 마지막회를 맞는 체육과학연구원 윤성원 실장의 태권도 트레이닝 방법론은 선수를 육성하는 팀 지도자뿐 아니라 도장에서 일반 수련생을 지도하는 사범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훌륭한 텍스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편집자 주〉

윤 성 원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학박사

태권도 운동이 건강 및 체력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보고에서 밝혀져 있듯이 일반인에게 표준 체중 유지 및 수련을 통한 각 관절의 유연성 증대 및 신체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력과 체중지지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하지의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지의 근력은 뛰고, 달리며, 던지는 인간의 기본 동작 수행시 매우 중요한 체력요인으로 최근 경제발전과 영양섭취 생활 변화 및 운동활동량 부족의 원인에 의해 급증하는 허리나 무릎의 상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지적되는 체력이라 할 수 있다.

운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 및 만족한 건강생활을 즐기는데 있어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운동상해이다. 즉 내적이나 외적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운동상해는 운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건강생활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는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태권도 운동을 실시하는 수련인에게 있어서 운동생활중 나타날 수 있는 운동상해에 대해서 그 원인 및 대책방법을 제공하고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처치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1. 태권도 운동상해의 종류

운동상해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미국의 하바드 스포츠의학팀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염좌, 좌상, 스트레인(Strain), 골절, 탈구, 염증, 감염 등의 순서로 나타나며 이는 스포츠 모

든 종목에 있어서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운동종목별 운동상해에 대한 조사보고(백현섭:1988)에서 태권도 종목의 경우 가장 많은 운동상해는 관절상해로 총 운동상해중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근육과 건의 상해가 46%, 피부상해가 4%로 나타났다. 뼈나 신경 감각 상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대상이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이기 때문에 뼈의 골절 상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도장을 이용하여 수련할 때 나타나는 운동상해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조사된 보고와 같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골절상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운동시 상해가 발생되면 상해종류를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2. 운동상해의 원인

운동상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내적원인이란 자신의 운동활동시 발생하는 상해로 신체의 내부의 힘에 의해 스스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체상태가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체력부족, 컨디션 조절의 부적절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체계적 훈련 방법, 적절한 컨디션 조절 및 수련방법의 과학화가 상해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적요인은 외력에 의한 타박등이나 타인 또는 환경 물체와의 사이에서의 작용으로 인한 상해로 일반적으로 이를 운동상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운동상해는 이와 같이 내적 및 외적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3. 운동상해의 요인

내적 및 외적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상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됨으로 지도자나 태권도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은 그 요인에 대해 세

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① 과도한 훈련(Over Training)

운동상해로서 나타나는 요인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의 신체조건이나 컨디션 이상으로 훈련을 실시할때 나타난다. 따라서 트레이닝시 경기력이나 체력향상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고성 증세(동통)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해서 실시한다면 상해발생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권도 운동의 경우 높은 운동강도의 무산소성 운동임으로 기술 훈련시 휴식없는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의해 상해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시 중간 휴식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② 잘못된 훈련방법(Bad Training Method)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책임이 지도자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방법 연구에 의한 수련지도가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있어서 제1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첫째, 운동량 증가는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

둘째, 운동강도는 일주일에 10%이상 증가시키지 말것.

셋째, 새로운 훈련방법은 그 적용을 서서히 접근시킬 것.

이러한 주의점을 상기하여 지도자는 수련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과보호나 아직 각 관절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육의 정도가 성장하는 단계이니 만큼 이 시기의 지도에 있어서 태권도 운동지도는 정확한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연성의 부족(Lack of Flexibility)

지나호에 서술한 바와 같이 유연성은 신체의 각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의 가동범위로 어린이나 성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체력요소

이다.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실시는 부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각 관절의 주변인 근육, 인대, 건 등은 휴식 중에도 운동으로 인해 경직이 계속된다. 따라서 운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동작하려는 기술을 보다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증강을 위한 트레이닝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체격 조건상의 문제(Structure Abnormalities)

태권도 선수의 경우 처음 운동을 실시할 때부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운동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운동선택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선택하였다면 지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지도할 때 항상 주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약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수련인이나 신체상태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기관지 천식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지속적인 운동 실시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이용한 기술지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처음 도장을 찾는 수련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호자에게 질문을 통한 수련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여 수련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기술 및 훈련부족(Lack of Skill and Training)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기술동작이 요구되는 데 간혹 수련인이 자신의 현재 기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한 기술 표현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집단으로 훈련시 기술이나 체력이 우수한 동료자의 동작을 보고 자신도 그대로 실시하려는 어린이의 경우 지도자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옆에서 보조하거나 다른 동작으로 유도시키는 세심한 지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⑥ 근육의 불균형(Inbalance of Strength)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어나는 근수축은 한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2개의 근육군이 동원된다. 즉 굴곡이 있으면 시전이 있고

외전이 있으면 내전이 있다. 이때 각 동작수행시 동원되는 근육군이 각기 다른데 각 근육군은 일상생활의 활동이나 트레이닝에 의해 근력의 발휘가 차이가 있게 형성된다. 만약 트레이닝 또는 활동의 성격이 한쪽 근육군에 치중하게 되면 이때 근육의 발달정도는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발휘되는 근력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운동시 약하게 발휘되는 근육군이 손상을 입어 운동상해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요인은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의 경우 현재 자신의 근력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므로써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상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도자는 주동근 훈련과 동일하게 근력 훈련도 반드시 삽입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주의집중결여 및 환경적 요인(Lack Attention and Bad Environment)

이는 운동을 실시하는 본인들이 운동수행시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해요인으로 지도자는 수련하기전에 오늘의 운동내용 및 주의사항을 본 운동전에 운동개요로서 충분히 설명하여 수련인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장의 환경적 요인으로 특히 매트나 바닥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운동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상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4. 운동상해 처치방법

운동상해중 임상적 처치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는 지도자의 많은 경험에 의해 판정내려야 하며 상해로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운동상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치를 내려야 심한 상해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간단한 방법이지만 짧은 시간에 치료가 가능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먼저 지도자는 운동상해가 발생되면 상해상태를 빨리 점검하여 처치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임상

적 치료가 요구될 때에는 근처의 병원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거의 모든 운동상해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는 더 큰 상해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는 도장내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응급처치 대한 RICE법을 정확히 알고 상해 발생시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① 휴식(Rest)

운동지도중 상해자가 발생되면 즉시 운동을 중지시키고 통증부위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운동을 증가시켜 휴식과 함께 상해부위의 1차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얼음찜질(Ice)

이 처치 방법은 매우 중요한 행동으로 상해가 발생되면 즉시 얼음을 이용하여 붓기를 억제시키고 혈액이 상처부위로 모여드는 것을 억제시켜 염증을 지연시켜야 한다. 이때 주의점은 만약 상해부위가 찢겨지거나 찰과상이 되었을 경우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타월이나 비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너무 오랫동안 얼음을 대고 있으면 동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5분마다 2분 정도의 마사지를 통해 약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이 붓는 상해의 경우 얼음찜질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처치이므로 도장에는 냉장고에 1회용 컵을 이용하여 만약에 대비한 응급 얼음팩을 준비하는 것을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③ 압박(Compression)

상처부위를 지속적으로 누르는 압박은 붓기를 억제함으로써 다음 치료의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행동은 너무 강한 압박을 혈관의 혈액공급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20분 정도 압박한 다음 5~10분 정도 풀어 주어 혈액을 순환시키는 동작을 되풀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처부위 올리기(Elevation)

일반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막상 운동상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쉬운 동작도 우리는 실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상처부위를 드는 행위는 상처부위의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시키는데 효과적인 처치방법이며 또한 과잉출혈이나 상처부위가 붓는 것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응급처치방법은 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특히 안전이나 자신의 체력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처치방법이므로 때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체계적인 체력 및 기술지도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때론 자만심 및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 및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신과 체력향상에 중점을 두는 태권도의 경우 이러한 자신의 인내력 및 자체력을 길러 주는 측면에서 태권도 지도시 체력이나 기술훈련시 본인에 맞는 기술 표현이나 체력훈련을 알맞게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자유 대련시 기술전개에 따른 본인의 상해나 타격에 의한 상대의 운동상해는 운동이란 측면에서 만족감이나 참용성이 길러질 수 있으나 그러나 자칫하면 상해로 인해 운동을 도중에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신체에 이상이 생겨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수련인의 체력과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사람에게 알맞는 수준의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노력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3) 트레이닝시 과학적인 훈련지도

운동시 상해를 입은 경우는 주동근과 길항근의

지도자란 수련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향상된 체력을 갖게 해줄 의무가 있는 운동 지도 책임자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스승이 되는 어려운 직업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항상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로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근력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다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중으로 뛰어 올라 발차기를 한 다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떨어졌으면서도 약간 길항근에 의해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무릎이나 발목 또는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는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은 주동근 훈련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반대편 길항근 강화훈련에 소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바벨을 들고 일어서는 동작에 있어서 서는 동작에만 주로 신경을 써서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구부리는 동작시에는 의식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길항근인 햄스트링근이 약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대퇴근 뿐만 아니라 어깨를 중심으로 발휘되는 근력이나 팔꿈치, 발목, 허리부위 모두 같은 경향이 라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누워서 복근강화 훈련을 실시 하였다면 반대로 엎드려서 상체 들기운동으로 배근력을 강화시키는 트레이닝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태권도의 경우 다리동작이 많은 운동이므로 발목과 무릎의 주동근 및 길항근 훈련은 수련 지도시 반드시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문제라 본다.

4) 유연성 강화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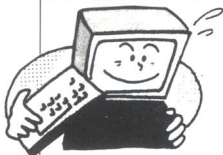
신체의 각 관절의 가동범위라 볼 수 있는 유연성은 운동상해와 매우 관련있는 체력 요인이다. 지난 호에서 지적하였듯이 유연성 결여에서 오는 운동상해는 건, 인대 및 연골 파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유연성은 훈련에 의해 하

루 아침에 향상되는 체력이 아니므로 지도자는 매일 수련지도시 준비운동에 삼입하여 스트레칭 및 PNF체조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면 유연성 향상을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정확한 자세에 의한 스트레칭 실시는 본 운동 수행에 있어서 운동의 수행력을 향상시키며 운동상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지도자는 명심하여야 한다.

5) 주위환경점검 및 의약품 구비

각 도장마다 오전이나 오후시간에는 국민학교를 지도하는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동작수행시 기술, 체력 및 주의력 부족으로 인해 운동상해가 발생되기도 하며 특히 도장바닥이나 주위 환경에 의해 운동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도 외적인 상해 발생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는데에도 주의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또한 수련인 중 질병이 있는가? 또는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점검하여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 구급약품 설치하는 매우 중요함으로 더 큰 사고를 손쉽고 빠르게 치료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구비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태권도 운동에 대한 체력향상과 안전 관리에 대해 5번에 걸쳐 소개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도자란 수련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향상된 체력을 갖게 해줄 의무가 있는 운동 지도 책임자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스승이 되는 어려운 직업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항상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로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도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재점검은 항상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 및 트레이닝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태권도인이여, 국기인 태권도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 그리고 국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하는 운동지도자로서 음지에서 노력하는 태권도인으로 남자.



컴퓨터 바이러스

박성욱 / 대한태권도협회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리 익숙치 않았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컴퓨터 바이러스를 한 두번은 들어 보았을 테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낭패를 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번 호에서는 바이러스의 실체와 그 예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88년 6월 'C브레인'이라는 바이러스이다.

국내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 됴으로써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으며 그 바이러스들도 점차 지능적이고 파괴력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바이러스라는 병원균이 기계에 감염되는 것일까? 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바이러스와는 구별되는 즉 공기 혹은 사람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감염되는 것과는 달리 디스켓이나 컴퓨터 또는 통신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 감염경로에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자신을 복제하여 즉 실행되는 프로그램 등에 옮겨가서 여러 곳에 전염시킨다.
- 둘째, 바이러스마다 조건이 틀리지만 그 조건이 맞으면 자신의 존재를 알리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바이러스는 주로 확장자가 실행 파일(*.EXE, *.COM)이나 시스템 파일(*.SYS) 등에 걸리는데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나는데 일단 다음과 같다면

한 번 의심해 보아도 좋겠다.

1. 컴퓨터가 아무런 이유없이 정지한다.
2. 컴퓨터의 작업 속도가 전과 다르게 이유없이 느리다.
3.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4. 키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5. 지정된 파일이 이유없이 사라진다.
6. 지정된 파일이 많아지거나 용량이 커진다.
7. 하드디스크가 부팅이 안되고 에러가 발생한 다.
8. 포맷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포맷이 된다.
9. 메모리 크기가 이유없이 줄어든다.
10. 화면에 이상한 문자나 글씨가 깨져서 나타난 다.
11.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프로그램이 정지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위의 징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몇가지이다.

그렇다면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은 안철수씨의 'V3'이다.

사용방법은 백신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토리(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로 가서 V3 C:을 입력하면 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1.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2. 프로그램의 무단 복사를 자제한다.
3. 통신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복사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백신을 이용해서 체크를 한다.

바이러스는 컴퓨터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태권**

전시회, 음악회, 영화관에서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따라서 태권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양과 인품으로 행동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시회, 음악회, 영화관을 찾는 태권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게재된 원고는 이명환씨의 『이럴땐 어떻게』(21세기북스)에서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전시회 · 음악회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은?

전시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 전에 전시회의 성격과 전시내용 · 전시자의 개성이나 특성 등에 대하여 알고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입구에 마련된 팸플렛 등을 참고로 하여 전시자의 이름과 프로필 만큼은 기억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작품을 차분하게 보아 나가다가 인상적으로 느껴진 작품은 느낌을 메모하며 좀더 세심하게 감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갔더라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크게 소리내어 웃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작품평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방명록에 싸인을 할 경우에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자유롭게 서명하도록 큰 종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서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식장에 10분쯤 일찍 들어가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해야 하며, 연주나 노래를 하는 도중에는 정숙을 유지하여 출연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박수를 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박수칠 곳이 아닌 곳에서 박수를 치므로써 연주자에 대한 실례를 범함은 물론 연주의 흐름을 끊어놓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박수는 연극·오페라·발레의 경우는 막이 내린 후에, 성악은 일반적으로 3곡마다, 기악은 마지막 악장 후에, 국악은 한 곡 연주 후에, 판소리·마당놀이에는 언제든지 쳐도 무방합니다.

[삼가야 할 행동]

규모가 큰 음악회 등의 경우에는 중간에 입장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음악회를 비롯하여 각종 연주회에 중간에 입장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하겠습니다.

연주 도중에는 기침은 물론 신발소리, 팔플랫 등의 소지품 만지는 소리, 동행인과의 귀엣말 소리 등 일체의 잡소리는 다른 사람의 연주감상에 방해가 되므로 특히 삼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박수는 쳐야할 때를 맞춰 알맞게 쳐야 하며 너무 오랫동안 소란스럽게 계속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앵콜은 한두 번 정도 청하면 대부분 받아 주지만, 받아주지 않는다고 회파람을 불며 고함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자꾸 청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화관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은?

사람들이 점차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됨에 따라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취미를

갖고 활발하게 참여하거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화감상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친구나 동료끼리·연인끼리 아니면 가족이 함께 좋은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푼다든가 기분전환을 통해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문화인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장표를 예매하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자신의 좌석을 찾아 착석하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착석하기 위해 남 앞을 지나갈 때는 “실례하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도록 하며, 만약 통로가 좁아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나가게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화장실에 간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득이 나와야 할 경우 남 앞을 지날 때는 뒷사람들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을 숙이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영화가 다 끝날 때까지는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가야 할 행동]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은 가급적 기침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웃는다거나 시종 몸을 꼼지락거리려 옆사람이나 뒷사람의 관람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영화 상영 도중 괜히 이쪽저쪽 두리번거린다거나 부스럭거리는 행위, 껌·사탕·과자 등을 소리나게 먹는 행위, 영화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동행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삼가야겠습니다.

또한 요즈음 가족 동반시 데려온 어린이들이 우는 바람에 많은 관람객을 연찮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정숙을 요하는 곳이니만큼 너무 어린 아이들은 가급적 동행하지 않는 것이 문화인으로서의 기본예의라고 하겠습니다. **태권**

국가대표의 꿈 떨치고 국민학교 교사되어 어린이 태권도 교육에 앞장



남부국민학교 태권도부 어린이들과 자리를 함께한 안명일씨

서울 남부국민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안명일씨는 이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비롯해 육상, 축구 등을 지도하는 만능 체육선생님이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인생을 보다 풍부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안명일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지만 어린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권하며 함께 뛰면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지만 선수로 키울 생각은 없다. 다만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 아이들이 노력한 댓가를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무엇이냐 열심히 할 때의 보람을 느끼게

해줄 따름이다.

국민학교 교육이 인격이나 정서 발달 등을 키우는 잠재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는 안명일씨는 국민학교 시절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국민학교 어린이를 놓고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

른들의 욕심일뿐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안명일씨는 국민학교 때부터 태권도에 뛰어난 자질을 보여온 유망주였다.

상도동에 있는 영본국민학교를 다닐때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던 그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국민학교 5학년 때 제 1회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에 출전해 라이트급 은메달을 따냈다.

6학년 때에는 한체급 올려 밴텀급에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봉천중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태권도부가 생기자 태권도부에 들어갔다. 취미삼아 태권도를 수련했는데 시합 때마다 출전해 입상을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 12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겸 제3회 전국 중고개인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핀급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학년 때에는 핀급 동메달, 3학년 때에는 플라이급 금메달을 따내는 실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또한 3학년때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 대표선수로 뽑혀 플라이급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렇게 뛰어난 태권도 기량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따내자 이왕이면 국가대표가 되어보겠다는 결심이 섰던 안명일씨는 태권도 명문고인 서울체고에 스카우트되어 진학을 하게 되었다.



서울체고 재학시절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시합에 출전했을 때의 안명일씨 (오른쪽 선수)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태권도수련을 통해 깨달았다는 안명일씨는 태극마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였다고 회상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태권도수련을 통해 깨달았다는 안명일씨는 태극마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였다고 회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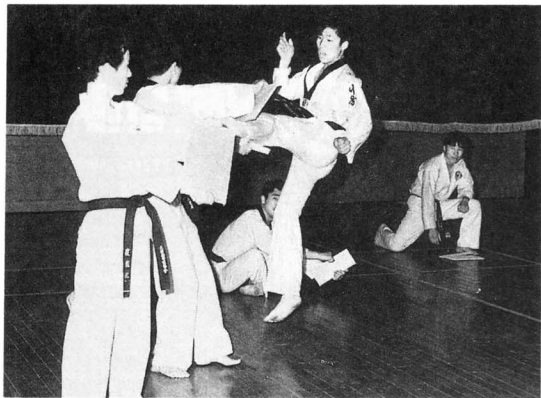
“새벽에 남들이 잘 때 일어나 노력하는 것, 다른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발차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

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태권도를 수련했기 때문에 고교 3년 동안에 전국 대회에서만 8개의 메달을 따낼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1979년도 한국대표선발전에서 핀급 2위에 올랐고, 3학년 때 플라이급 3위에 올랐던 것이다.

요즘은 국제대회가 많아 2위나 3위자도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1위가 아니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안타깝게도 안명일씨는 늘 국가대표급 선수였지만 태극마크의 꿈은 문턱에서 좌절되었던 것이다.



서울교대에 다닐때에도 태권도부에서 활동했다.

3학년 2학기가 되자 연교대를 비롯해 태권도 명문대학에서 태권도 특기자로 스카웃하겠다는 제의가 많이 왔다.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가로 집안에서는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정작 안명일씨는 태권도 선수 생활을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야 하 것인가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학에 태권도 특기자로 진학을 하였으면 국가대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그 다음 진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발차기만 열심히 한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보람있는 일을 해 보고싶은 생각에 잠

매사에 무슨 일이든 하고자 목표를 정하면 남들보다 몇배의 노력을 해왔던 안명일씨는 서울교대 합격을 목표로 최소한의 잠만을 자며 하루 15시간 이상을 꼼짝하지 않고 입시 공부

도 못자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들으신 당시 태권도 감독이었던 노상석 선생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공부할 것을 권유, 3학년 2학기 9월부터 3시간씩 자며 공부하는 입시생으로 돌변했다고 한다.

내신 1등급의 우등생이었던

안명일씨는 그동안 태권도에 쏟았던 노력을 공부하는데 쏟았다. 매사에 무슨 일이든 하고자 목표를 정하면 남들보다 몇배의 노력을 해왔던 안명일씨는 서울교대 합격을 목표로 최소한의 잠만을 자며 하루 15시간 이상을 꼼짝하지 않고 입시 공부에 매달린 결과, 불과 4개월의 공부로 당당히 서울교대의 합격증을 따낼 수 있었다.

이제 국민학교 교사로서 어린이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안명일씨는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남부국교 태권도부에는 10여명의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며 각종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소년체전에서 2명이 입상권에 들었고 서울시 개인대회에서도 입상자를 배출했다.

“대회에 출전하는 어린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댓가로 메달을 따내는 것을 축하해 주지만 태권도 선수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특기로 미술이나 음악, 축구나 농구를 하듯이 태권도를 하면서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안명일씨는 현재 교원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앞으로 늘 “꾸준히 노력하는 삶, 나의 발전을 위해서 늘 공부하면서 살겠다”는 그는 대학원을 마치면 박사과정에도 입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권**

“우리나라 최고의 도장으로 만들겠다” 의욕불타는 전용답 사범

— 경기도 부천 백호체육관

우리나라의 전체 도장수는 4천여개에 달한다. 이들 도장 중에서 각 시도별로 우수한 도장을 선정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매년초 우수도장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경기도 대표로 부천의 백호체육관이 우수도장상을 수상했다.

여류소설가인 양귀자씨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로 널리 알려진 부천의 원미동에 자리잡고 있는 백호체육관은 무엇보다도 도장 시설면에서 남다른 투자를 했다고 보여진다.

백호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건물은 지은지 얼마되지 않아 우선 깨끗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태권도장은 사무실과 샤워실 등 전체 85평이고 도장 넓이만 55평이나 되는 넓은 도장이다. 도장 4면을 유리로 해 놓아 수련생들이 자신의 수련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했고 참나무로 마루를 깔아 전통 무도 도장



’94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을 받은 전용답사범

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특히 샤워시설을 마련해 여름에 운동하고 난뒤에는 시원하게 땀을 닦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도장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로 천정의 조명을 할로젠 램프로 설치해 회원들의 시력보호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백호체육관의 전용답사범은 “도장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우선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도장에 내 아이를 보낼 것인가 하구요, 우선 지도자가 최선을 다해 지도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도장시설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



우렁차게 기합을 지르며 태권도 품새를 익히는 수련생들

니다. 시설면에서 어느 학원이 나 도장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현재 백호체육관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은 350명 정도. 국민학생만 300여명에 달하고 성인부에 5~60명이 저녁에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성인부 시간에 3단의 제자가 지도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수련생들 모두를 전사범 혼자 지도하고 있다. 힘이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새벽 5시면 기상해 매일 20Km에 달하는 원미산일대를 구보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고 건강을 과시하며

“도장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우선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도장에 내 아이를 보낼 것인가 하구요.”

대답을 대신했다.

전용답사범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4학년 때 허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고향인 전북 신태인의 신태인체육관에서 정일환사범으로 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5단의 고단자가 되어 태권도 지도자가 된 것이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가라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전사범은 백호체육관을 최고의 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ENP**

시설, 관리, 지도에 만전

-대전 둔산체육관

둔산체육관은 기초부터 유단자까지 급수별로 수련생들을 지도, 관리하는 담당사범제를 실시하고 있다.

옛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대전은 93년도에 대전 세계 무역 박람회로 전세계에 알려지고 올해에는 제7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대전 둔산체육관은 대전세계무역박람회 형성된 둔산신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다.

둔산체육관 한영환 관장은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는 지난 2월 협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도장 표창을 받았다. 그는 『오늘의 위치에 오기까지 이끌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겸손해 하지 않았다.

한영환 관장은 현재 도마동에 제1도장인 충남태권도장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1,000여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고 92년도에 대전의 신도시인 둔산에 제2도장인 둔산체육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96년 1월에는 제3도장을 개관할 예정

이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수도장표창을 수상하게 된 한영환 관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할 수 있다.

첫째, 시설적인 측면

수련효과를 높이기 위해 둔산체육관에 들어서면 정리정돈이 항상 잘 되어 있다. 또한 둔산체육관은 3개의 수련장을 가지고 있다. 제1수련장과 제2수련장 제3수련장에서의 분리수련이다. 수련장이 항상 쾌적한 분위기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장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둘째, 관리적인 측면

둔산체육관 한영환 관장이 제일 강조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체육관 시설도 좋아야하고 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되면 안되지요' 하고 그는 강조한다. 둔산체육관은 P.C를 통해 관원 관리 및 체육관의 모든 관리를 한다. 관장을 비롯, 지도 사범들이 P.C를 활용하여

수련생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 특이한점은 담당사범제를 실시하여 지도사범이 담당한 수련생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범들을 지도하고 있다.

셋째, 지도적인 측면

현대에는 단순히 태권도만을 지도하는 사범이 아닌 교육자라는 입장에서 지도해야 한다.

둔산체육관은 현재 한영환 관장을 중심으로 5명의 사범과 1명의 선수부코치가 지도하고 있다. 왜 이렇게 사범이 많냐고 하니가 둔산체육관의 특징이기도 한 담당사범제 때문이라고 한다. 기초부터 유단자까지 급수별로 수련생을 담당하게 하여 단계별로 지도하게 되는데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 세가지 측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관장을 비롯한 지도사범들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다. 한영환 관장은 항상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사범들이 제자라는 점이다. 둔산체육관 관원생들의 자랑거리는 94년도 우수도장지도도 있지만 체육관 주변의 3개 국민학교 전교학생회장(한밭국교: 권지혜 1품, 문정국교: 정진영 1품, 삼천국교: 박재홍 1품)이 체육관 관원생들이다. 특히 한밭국교의 경우 여자관원생이 학생회장이라는 점이 둔산체육관 관원생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94년도 대전지역 제1차 승품·단 심사대회에서 105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둔산체육관 수련생들이 사범의 구령에 맞춰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한영환 관장

한영환 관장은 체육관 운영만이 아닌 청소년 지도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대전서부경찰서 태경회 회원이면서 청소년 선도위원 및 선도지정기관이다. 또한 수련이 끝난 후에는 동네의 어두운 골목을 밝혀주는 태권도인으로 동네주민들에게 청소년지도 감사패를 받기도 한 그는 항상 앞장서 가는 태권도인이 되기위해 평생을 태권도와 같이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태권도인의 저변확대와 질적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태권**

〈대전 신재홍 편집위원〉

제 23 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빛고를 “영광의 두 얼굴”

광주문성중학교, 김재훈-소년체전 2연패(22회, 23회), 김의철-최우수선수상수상

“이 압” 마지막 1초, 날카로운 기합소리와 함께 광주의 응원석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5월 30일 조선태 체육관에서 열린 소년체전 태권도 플라이급 결승전 경기.

메달의 빛같은 경기종료 1초

를 남기고 황금색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편급으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낸 김재훈 선수는 자신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

결승전에 오른 두 선수는 광

주의 김재훈(3년)과 경기도의 전용조, 시작을 알리는 주심의 신호에 따라 두 선수는 주먹을 굳게 쥐고 경기에 들어갔다. 경량급인만큼 몸동작이 빨라 서로 경계하며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다.

두 선수들의 주먹이 한 두번 나가고 발이 높이 치솟은 듯 했으나 정작 상대방을 가격하지는 못했다.

2회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3회전 마지막 경기, 두 선수는 서로를 노려보며 한 스텝씩 다가섰다. 날카로운 기합과 함께 몇차례 부딪혔으나 전광판에 득점은 매겨지지 않았다. 황금같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선수의 진영은 갈수록 긴장되었다. 1·2회전을 합하여 주심의 우세판정기에만 19:19로 매겨 있었다.

김재훈의 뒤에 초조한 마음으로 코치하던 최기술씨의 입에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강원식 전무이사로부터 상징과 트로피를 수여받는 김의철선수

서 고풍이 터져 나왔다. “빨리 공격해”하는 순간 김재훈은 상대 선수를 재빠르게 몰아 붙이면서 원발 몸통돌려차기를 시도하였고, 상대도 교차하면서 맞받았다.

이어 경기종료 신호가 울리면서 청선수 전광판의 숫자는 0에서 1로 바뀌었다.

전국소년체전 2연패를 이룩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라이트급으로 출전한 같은 학교 김의철 선수(3년)도 광주의 확실한 메달리스트로 지목되고 있었다.

지난해 플라이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의철은 3학년이 되면서 키가 무척 크고 체중도 많이 늘었다.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올린 김의철 선수는 상대의 공격을 차분하게 받아내면서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였다.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 경기마다 7~8득점씩 확실한 득점을 올려 그의 발동작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30일 라이트급 결승전경기에서 부산의 김정일 선수와 맞선 김의철 선수는 1회 초반에 상대의 얼굴내려차기를 받아차면서 1:1을 이겼으나 얼굴을 맞아 다운을 당하는 바람에 주심의 카운트가 시작되었다.

광주의 임원진에서는 김의철의 불안한 출발에 초조한 마음이었으나, 정작 경기에 임한 김의철은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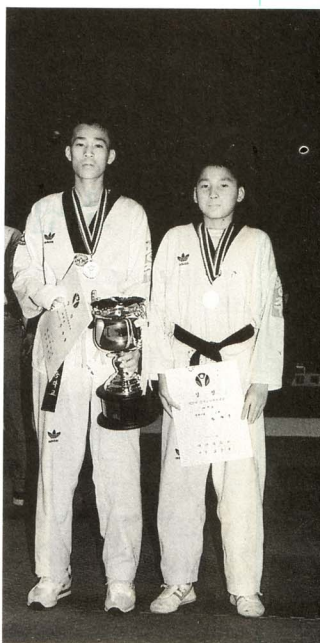
었다. 순식간에 오른발에 이어 왼발돌려차기가 상대의 몸통과 얼굴에 가해지면서 3:1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2회전과 3회전을 통하여 다양한 발기술을 구사하며 8득점을 획득한 김의철은 가장 확실한 최우수 선수로서 손색이 없었다. 경기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광주 선수들의 시합은 모두 끝났다. 광주에서 획득한 메달은 금 2, 은 1, 동 4.

이 중 문성중학교가 따낸 메달은 금 2, 동 1의 성적을 올렸다. 경기 후 문성중학교 감독 박종선교사와 선수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온 전남체육관 5도장 윤웅석 관장은 학부모들과 서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소년체전은 질서와 인정, 화합체전으로 성공리에 마쳐졌다. 한총련 출범식이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주변 분위기는 떠들썩하고 어수선했지만, 태권도 경기를 치르는 체육관 안에서는 차분한 가운데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대회기간 문성중학교 학부모회에서는 매일 점심을 준비하여 선수 및 임원, 심판들이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인정이 넘치는 남도예향의 정성도 넉넉히 보여주었다.

이들 선수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중·고연맹 회장기대회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에



소년체전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김의철(좌)과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김재훈(우)

있는 가운데 부쩍 성장해 가는 꿈나무들의 행사에서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 대회에서 문성국민학교는 김재훈(플라이급 1위)과 김의철(라이트급 1위)의 우승에 힘입어 중학부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태권**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창단 1년만에 소년체전 전북 대표 2명 배출

—전북 군산동중학교—



이완화 교장



이창호 감독



손도철 코치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역이며
항구의 도시에 자리한 군
산동중학교를 찾았다.

지성, 자율, 협조, 실천, 근검
의 교훈아래 1949년 10월 4일
군산초급동산중학교 6학급으로
개교한 이래 1951년 9월 1일 군
산동중학교로 교명이 변경 되었
으며 지금은 1992년 6월 25일
신축한 교사로 이전, 이완화 교
장과 889명의 학생, 42명의 교
사진으로 짜여진 조금은 규모가
작은 학교이다.

1993년 3월에 창단된 태권도
부는 이창호 감독과 손도철 코

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창단 1년여만에 금번 광주에서
열린 소년체전에 2명이 전북선
수로 선발되는 실력을 갖추었
다.

이완화 교장은 태권도가 학생
들에게 예의를 갖추게 하고 강
인한 정신을 키워주는 운동이라
며 교육적인 측면과 정신수양
면에서 전교생의 태권도 수련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선수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지만 소규모
학교라서 예산문제가 난관이라
며 안타까워하시며 태권도외에

도 육상, 역도 등 3종목을 육성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태권도
가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도자와 학생들에게 고마
울뿐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군산동중학교의 선수는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내에 체육관시설이 여의치 않
아 손도철 코치가 운영 중인 50
여평의 군산 한국체육관에서 매
일 방과 후 2시간씩 수련을 하
고 있다.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손도철
코치는 올해 광주에서 열린 소
년체전에 출전해 입상에는 못



93년 전북회장배대회에서 단체 준우승을 차지하고



태권도부의 수련모습



학교본관앞에서

미쳤지만 선수들이 기량향상을 꾀하고 대회 경험을 쌓아 앞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태권도부원들은 앞으로 중학 태권도 최강팀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군산동중학교 태권도부)

- ▲핀 급: 임두일, 두상진, 박성철, 홍승호, 이지훈
- ▲플라이급: 김성중, 김성두
- ▲밴 팀 급: 송성택, 김도영, 김준호
- ▲페 더 급: 박기정, 선복철
- ▲라이트급: 이인환
- ▲라이트웰터급: 문병철
- ▲웰 터 급: 문경준
- ▲라이트헤비급: 변우진

(태권도부 전적)

- ▲1993. 3. 창단
- ▲1993. 4. 9.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선발전 1위 임두일, 2위 문경준
- ▲1993. 4. 19~21. 전북교육감배 개인우승 3명, 준우승 3명, 장려상
- ▲1993. 5. 12~13. 전북소년체전 개인우승 3명, 준우승 3명
- ▲1993. 9. 16~18. 전북도지사배 개인우승 5명 단체 장려상
- ▲1993. 10. 30~11. 3. 전북회장배 개인우승 4명, 준우승 3명, 단체준우승
- ▲1994. 3. 전국소년체전 전북 최종 선발전 우승 2명, 준우승 4명

〈전북 정철 편집위원〉

풍생 중·고 태권도부 제21회 중고연맹대회 동반우승

성남의 명문으로 자리를 굳혀 나가는 풍생학원(수진동 소재)이 큰 일을 해냈다.

풍생 중·고등학교 태권도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동안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벌어진 '제21회 전국 중·고 태권도 단체대항전'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강호들을 누르고 나란히 우승을 차지, 동반우승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오래 전부터 태권도의 최강팀으로 군림해 온 풍생 태권도는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 각종 규모의 전국 대회에서 술한 우승을 차지, 그 전진목을 드러내 왔다.

1973년 당시 해병대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다 제대한 강선장 주임 교사와 인연을 맺으며 출범한 풍생 태권도부는 창단 8개월만에 전국 대회에서 3위를 차



강선장 감독

지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더니, 18개월만에 전국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 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온 풍생 태권도는 경기도 교육감배와 협회장에서는 7연패라는 실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지난 92년에는 창단 20주년을 기념하여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독일·일본·베네수엘라·네팔 등에서 우수 선수들을 초청, 4개국 국제 친선 태권도대회를 약

3500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히 치르기도 하였는데, 일개 고등학교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좀처럼 보기드문 일이다. 이 밖도 미국·동남아·유럽 등지를 돌며 몇 차례 국제 순회경기를 갖는 등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며 민간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창단 당시,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던 성남시에서 태권도의 무도 정신을 학업과 정신 건강에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겠다는 신념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래 20여 년을 거치며 전통의 명문으로 성장한 풍생 태권도부는 풍생이 학력 뿐 아니라 기타 예·체능 부문에서도 빼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명문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작년에도 '제5회 경희대 총장



유럽7개국 순회친선경기를 가진 풍생고 태권도팀(스페인 장종태사범의 도장수련생들과)

기 전국 '고교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풍생 태권도부는 이번 우승을 통해 그 동안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인식한다.

20여 년 동안 태권도부를 거쳐간 선수들 가운데 장종태·정찬을 비롯 10여 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으며, 1회 장종태(스페인) 5회 장한배(스페인) 김건수(미국) 등이 해외에서 활동 중이고 그외 다수가 성남 등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중학교 선수들을 이끌고 동반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이경배 교사도 풍생고(6회) 출신으로 진작부터 모교에서 후배 지도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풍생 태권

풍생고
제29회 대통령기
단체대항전서
고등부 우승차지하며
태권도
최강팀 자랑

도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은 태권도의 무도 정신을 가슴에 지닌 강선장 교사의 집념과 열의일 것이다. 그는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이며 고유의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 및 사회 시설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산재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며, 풍생 태권도는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태권도가 올바른 자기 수련을 위한 무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한다.

그의 말처럼 풍생 태권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태권**

〈경기 김형호 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국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 전수식서 26명 서훈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국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전수식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송봉섭 감사 등 태권도 인사 26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지난 4월 27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포상수여식은 서훈대상자 185명을 비롯한 가족, 친지, 문화체육부장관 및 차관보, 대한체육회 임직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상 전수식에서는 청룡장 5명, 맹호장 2명, 거상장 23명, 백마장 44명, 기린장 108명, 체육포장 103명, 대통령 표창 149명, 국무총리표창 17명이 수

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태권도계 수상자들은 제 11회 남자 및 제 4회 여자 태권도선수권대회, 제 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선수단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임원 및 선수에게 훈포장의 영광이 돌아갔다.

훈격별로는 거상장 12명, 백마장 8명, 기린장 4명, 체육포장 2명이다.

(수상자명단)

▲체육훈장 거상장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진승태, 김인경, 김병철, 박세진, 임영호, 김제경

●제4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 유수미, 이송민, 김미영, 박은선, 정명숙, 박경숙

▲체육훈장 백마장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단장 : 송봉섭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감독 : 예조해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코치 : 유수철, 윤오남

●제4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감독 : 이진수

●제4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코치 : 김영희, 박계희

●제4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 박경숙

▲체육훈장 기린장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 서성교, 이순영, 모선영, 이선희

▲체육포장



이만철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체육포장을 수상하고 있는 김성숙 선수

-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코치: 권혁중
-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김성숙

'94년도 월드컵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7월21일부터 23일까지 케이만아일랜드 조지타운에서 개최되는 '94년도 월드컵대회에 임원 5명, 선수 10명 등 총 15명의 한국대표선수단을 파견한다. 한국 대표선수단 단장으로는 장준웅 한국중고태권도연맹 회장이 선임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번 대회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종목이 결정되는 9월의 IOC파리 총회를 직전에 두고 개최되는 국제대회이므로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올림픽 종목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메달 분산을 위해 남녀 선수 각 3체급을 제외하여 5체급씩 파견한다.

월드컵태권도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선정한 대륙별 태권도 강국이 참가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력이 발휘되는 권위있는 국가대항전으로 1986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즈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91년 유고, 자그레브에서 열린 5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남자부는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는 9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나 한국은 준우승, 91년 대회에 종합 3위에 머

물러 이번 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표선수단은 월드컵대회를 마치고 미국 포틀랜드 및 시애틀의 태권도 한마당 행사에 참가, 시범 경기 및 친선경기를 통하여 미국내 태권도 보급을 촉진하고 동포 사범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월드컵태권도 선수단 명단)

- ▲ 단 장: 장준웅(한국중고태권도연맹회장)
- ▲ 감 독: 조호철(대한태권도협회생활체육분과위원장)
- ▲ 코 치(남): 박운서(선인고)
- ▲ 코 치(여): 임연선(영복중고)
- ▲ 남자선수
 - 핀 급: 진승태(한국체대)
 - 플라이급: 서성교(춘천군청)
 - 밴 텀 급: 김인경(한국체대)
 - 라이트급: 박세진(영천시청)
 - 미 들 급: 이동완(서울체고)
- ▲ 여자선수
 - 핀 급: 유수진(경희대)
 - 플라이급: 서미라(용인대)
 - 밴 텀 급: 김순동(고양여고)
 - 라이트급: 채수진(혜성여고)
 - 미 들 급: 양춘희(김제북고)

'94 군월게임, 한국대표선수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7월27일과 28일 러시아 삿페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94년도 군월게임에 임

원 3명, 남녀선수 6명 등 총 9명의 한국대표선수단을 파견한다.

한국대표선수단은 김호재 국가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학감을 단장으로 오선홍 세화중교사를 코치로 임명하고 남녀 페더, 웰터, 헤비급 국가대표 2진을 대표선수단으로 구성했다.

대표선수단은 7월24일 출국, 29일 귀국한다.

(군월게임 파견 선수단 명단)

- ▲ 단 장: 김호재(태권도지도자연수원학감)
- ▲ 코 치: 오선홍(제주세화중 교사)
- ▲ 임 원: 고정욱(대한체육회직원)
- ▲ 남자선수
 - 페 더 급: 이준희(태성고)
 - 웰 터 급: 김경훈(한체대)
 - 헤 비 급: 김정규(경희대)
- ▲ 여자선수
 - 페 더 급: 김미선(인천전대)
 - 웰 터 급: 김미영(용인대출)
 - 헤 비 급: 추수연(용인대)
- ▲ 심 판: 한상진(국제심판)

제3회 베트남오픈 국제대회, 한국대표선수단 파견

베트남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제3회 베트남오픈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가 7월22일부터 24일까지 호치민에서 개최된다.

9개국 참가가 예상되는 이번 대회에 대한태권도협회는 부산직할시협회 대표선수를 파견키

태권도 소식

로 했다. 한국대표선수단은 임문수씨(신도철강 대표)를 단장, 이근우 부산협회 전무이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 및 선수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베트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92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한국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시범 및 친선경기를 가진 바 있고 93년 9월에 호치민에서 열린 2회대회에 대표선수단을 파견한 바 있다.

(제 3회 베트남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참가선수단 명단)

- ▲ 단 장 : 임문수
(신도철강대표)
- ▲ 총 감 독 : 이근우
(부산협회전무이사)
- ▲ 감 독(남) : 최정권
(부산협회총무이사)
- ▲ 감 독(여) : 이부용
(연체체육관관장)
- ▲ 코 치(남) : 김우규
(동아대감독)
- ▲ 코 치(여) : 신동점
(서부체육관관장)
- ▲ 회의대표 : 이경구
(수양체육관관장)
- ▲ 주 무 : 김태하
(동양체육관관장)
- ▲ 남자선수
 - 편 급 : 김태근(동천고)
 - 플라이급 : 김규환(동아대)
 - 밴 팀 급 : 이임수(동아대)
 - 페 더 급 : 유용진(동아대)
 - 라이트급 : 박재홍(동아대)
 - 웰 터 급 : 진준수(동의대)

▲ 여자선수

- 플라이급 : 조재영(배정여상)
- 페 더 급 : 차준희(동명전대)
- 라이트급 : 김영희(동명전대)
- 미 들 급 : 김소진(서부체육관)

중국에 시범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중국 국제우의촉진회의 초청으로 중국에 태권도 시범단 16명을 파견한 바 있다.

태권도 시범단은 중국의 대도시인 연길, 북경, 신천, 천진, 마카오, 홍콩 등을 순회하며 8월5일부터 19일까지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92년도에 중국에 최초로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여 북경과 연변에서 태권도시범을 보이며 중국에 태권도 보급을 촉진시켰고 지난해에는 북경, 심양, 하얼빈, 상해 등 4개 대도시 순회 시범을 보인 바 있다.

서울특별시협회

제14회 교육감기 대회 개최

서울시 협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 서 600여명의 초·중·고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14 회 서울시 교육감기 대회를 가졌다. 본 대회는 금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 7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대표 선수 1차 선발전을 겸



대회개회식에서 대회사를 하는 엄운규 서울시협회장

하고 있어서 더욱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경기에 앞서 개회식에서 엄운규 회장은 “태권도가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태권도인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해서 모든 태권도인이 깊은 애정으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태권도 경기의 선진화 작업에 다함께 동참해 주길 당부 하였다.

3일간 치뤄진 경기결과 입상 전적을 보면 국교부 1위 광희국교, 2위 은천국교, 3위 고덕국교가 차지하였고, 중등부 1위 배명중학교, 2위 당곡중학교, 3위는 용곡중학교가 차지하였으며 고등부 1위 송곡고, 2위 동성고, 3위는 서울체육고등학교가 각각

차지하고 막을 내렸다.

제14회 초·중·고 개인 대회 개최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서울시 초·중·고 개인 선수권 대회를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인 선수 발굴을 위한 본 대회는 그동안 우수 선수의 등용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본 대회에서 우수한 각 체급별 우승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장학금 지급액은 국교부 우승자 11명에게 각 15만원씩, 중등부 우승자 11명에게 각 20만원, 고등부 우승자 8명에게 각 25만원씩 총 585만원을 지급하였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교부: 유승대(신화국교), 최홍권(면목국교), 안용성(고덕국교), 류영하(문성국교), 박상일(쌍문국교), 김재현(면목국교), 최태식(문성국교), 박효상(문덕국교), 전영연(거여국교), 정진현(영본국교), 민범식(마천국교)

▲ 중등부: 안형준(사당중), 오규하(당곡중), 손호형(쌍문중), 이석관(배명중), 홍인기(덕원중), 이동훈(용곡중), 김수찬(문일중), 김병조(재현중), 김명균(자양중), 김봉수(전동중), 최용석(한성중)

▲ 고등부: 김준성(동성고), 김영훈(송곡고), 손민호(송곡고), 우천희(성동고), 신원범(서울체고), 조현준(한성고), 강훈(한성고), 최용덕(송곡고)

서울 소년 체육대회 개최

지난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국기원에서 제12회 서울 소년 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개최되었다. 서울시내 9개 교육구청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각 교육구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다투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체급별 우승자는 5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서울대표로 참가하였다.

종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동작교육구청, ▲2위 동부교

태권도 소식

육구청, ▲3위는 강동교육구청.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부산직할시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직할시 협회에서는 1994년도 제2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지난 4월 17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고 250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465명, 2품 587명, 3품 137명, 1단 175명, 2단 70명, 3단 66명이 합격하였다.

한편 심사장에서는 부산의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일선 도장 관장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자 명단: 이해진(대한체), 박동식(대웅체), 박복태(성산체), 안효열(아카데미)

제5회 관장체육대회

부산직할시 협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 제5회 관장체육대회를 금정구 남산동소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잔디구장에서 12개구지회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 김차진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태권도 지도를 위해 좁은 공간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하루만이라도 이 넓은 운동장에서 가슴을 활짝펴고 마음껏 뛰고 달리자고 하였다.

이번경기는 100미터 달리기와 400~800미터 계주 그리고 각지회별 축구경기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협회장을 중심으로 협회임원·이사로 구성된 한팀과 지회장과 각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 팀의 축구대결은 서로 부딪치며 넘어지는 등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부산의 태권도 도장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뛰고 달리며 친목을 다졌다.

또한 각 지회별 달리기대회마다 응원의 함성이 금정산 기슭을 메아리 치기도 하였다. 지회별 종합순위는 1위 금정구 지회, 2위 북구 지회, 3위 해운대구 지회, 4위 부산진구 지회, 5위 강서구 지회가 차지했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대구직할시협회

제2차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대구협회는 94년 4월 27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1,86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1품 1,120명, 2품 481명, 3품 95명, 1단 62명, 2단 43명, 3단 38명, 4단 25명, 5단 4명.

제3회 어린이 태권왕 선발대회

대구협회는 6월 4일과 5일 이틀간 44개 국민학교에서 체급별 대표로 181명이 출전한 가운데 제3회 대구 어린이태권왕선발대회 및 어린이 가장 돕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겨루기 시합과 함께 어린이가 가장 30명에게 10만원씩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도 펼쳐졌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 : 송석진(대봉국), 이영목(아양국), 조바오(아양국), 나주연(월배국), 박민호(대봉국), 남정민(달서국),

도배환(동인국), 최원진(달서국), 김도훈(진천국), 서성인(칠곡국), 김기년(삼덕국)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인천직할시협회

인천시장기 대회 개최

제2회 인천시장기 초·중·고 태권도대회에서 선인고와 인천체고가 남여고등부 종합패권을 차지했다.

지난 3월 25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이틀간의 열전끝에 막을 내린 이번대회에서 남고부의 선인고는 플라이급의 박희철과 밴텀급의 김차성, 라이트급의 최태호, 미들급의 전명환이 우승을 하는 등 모두 금 4, 은 2, 동 2을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일 경기에서 8체급 모두 경승에 진출하며 호조를 보였던 인천체고는 2명만이 금메달을 따내 준우승에 그쳤다.

또 남중부 경기에서는 신생 효성중이 결승서 위력을 보이며 금 5, 은 2, 동 1을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만수여중과 삼산국교도 종합 1위의 명예를 안았다.

한편 을 전국체전부터 시범종목으로 채택,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여고부에서는 플라이급의 이선형 등 무려 6체급을 석권한 인천체고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광주직할시협회

광주 소년체전 개최

꿈나무들의 잔치인 초등부 광주 소년체전과 제23회 소년체육대회 중등부 광주대표를 선발하는 첫 시합이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염주동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웅원숙에 개최되었다.

초등부는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200여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뤘고, 중등부는 11체급의 광주대표를 선발하였다.

▲소년체전대표 : 김성식(조대부중), 김재훈(문성중), 강창호(북성중), 박성준(문성중), 김의철(문성중), 이주한(문성중), 장부식(문성중), 전효민(용봉중), 홍광석(문성중), 강창민(북성중), 문형철(북성중)

교육감기 대회 개최

제8회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육감기대회가 3월 26일과 27일 염주동 종합체육관에서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주었다.

각 부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교부 : 고재필(대촌중앙국교), 조영배(무학국교), 이우영(봉주국교), 강성선(백일국교), 신상훈(하남동국교), 안주용(하남동국교), 이준호(하남동국교), 홍정연(광주남국교), 김영생(하남

태권도 소식

동국교), 정원태(하남동국교), 정민국(무등국교)

▲ 중등부 : 한서용(문성중), 김재훈(문성중), 이형은(문성중), 장일찬(문성중), 김의철(문성중), 조명하(상무중), 문동주(용봉중), 손원일(북성중), 김종민(체육중), 강장민(북성중), 문형철(북성중)

▲ 고등부 : 김수연(체육고), 김영인(체육고), 김영훈(체육고), 임언우(고려고), 염균(고려고), 유권(체육고), 신진구(체육고), 정재훈(국제고)

심판교육 실시

심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지역에서 1, 2, 3급 심판교육과 보수교육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심판교육대상자는 1급 2명, 2급 15명, 3급 94명과 보수교육에 50명이 신청하여 교육에 임하였다.

전국체전 1차 선발대회개최

제8회 초·중학교 대항 태권왕기 태권도대회를 겸해 제75회 전국체전 1차 선발대회가 5월 7일과 8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지난해까지 초등부만 태권왕을 선발해 오다가 올해부터 중등부를 신설하여 중등부의 실전기량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초등부 : 1위 하남동국민학교,

2위 봉주국민학교, 3위 광주남국민학교, 감투상 오치국민학교, 장려상 화정남국민학교

▲ 중등부 : 1위 문성중학교, 2위 북성중학교, 3위 체육중학교.

▲ 태권왕 : 초등부 이준호(하남동국교), 중등부 김재훈(문성중).

태권도인 친선체육대회

광주직할시 체육관협의회에서는 일선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5월 22일 화정국교 운동장에서 태권도 전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각 구별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상품도 꾸밈히 마련하여 좋은 날씨속에서 친목을 다졌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대전직할시협회

동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동신체육관 3연패

대전 시내 동구, 서구에서는 청소년 수련생을 대상으로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123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4월 3일 동구청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동구 청장기 태권도 대회에서 “동신체육관”이 3연패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올림픽 국민생활 체육관에서는 제1회 서구 창강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부문별 우승팀은 거루기 부분에 “둔산체육관” 품새 부분에 “현무체육관” 묘기 부분에 “배재체육관”이 우승하였으나 종합 우승에는 각 부문별로 골고루 입상한 “정심체육관”이 첫 대회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심판 강습회 및 품새교육

제7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전직할시 태권도 협회에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 대전 지역 심판 강습회와 4월 30일부터 2일간 지도자 품새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 소년 체육대회 개최

지난 4월 12일부터 2일간 신탄진 새일고등학교에서 국교부 158명 중등부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대전직할시 소년체육대회를 개최 각 체급별 우승자를 가렸다. 중등부 입상자는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전직할시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국교부 : 이희재(동대전국교), 윤석준(문정국교), 진혜원(보은국교), 유상구(보은국교), 안영상(성남국), 이용한(용천국교), 문민철(정림국교), 소재국(가수원국교), 구호영(목동국교), 강

성용(홍릉국교), 노춘호(왕동국교)

▲중등부 : 정우대(체육중), 오정근(오정중), 차진우(경덕중), 김정기(체육중), 김영일(오정중), 이정일(신탄진중), 김연철(유성중), 박세진(신탄진중), 이갑주(오정중), 이승욱(희덕중), 장성훈(오정중)

(대전 신재홍 편집위원)

대표 114명 등 총 2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김형호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5월 심사, 1210명 합격

강원도협회는 5월 12일 원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송품단심사대회를 개최하고 12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송품자는 1품 597명, 2품 310명, 3품 63명 등 총 970명이며, 승단자는 1단 142명, 2단 65명, 3단 33명 등 총 240명이다.

충청북도협회

소년 체육대회 개최

제23회 충북 소년 체육대회가 4월 15일과 16일 충주 남한강 국민학교 강당에서 충북도내 국민학교, 중학교 유품, 단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중학부는 전국 소년체전 대표 선발을 겸한 경기로 펼쳐져 체급별 우승자는 충북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부별 우승자 명단

▲국민학교부 : 이상우(제천입석), 김호중(제천홍광), 반재희(중평국교), 김대찬(제천의림), 박영욱(음성무극), 오명우(청주봉정),

경기도협회

16회 협회장기 대회 개최

경기도 협회는 5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제16회 경기도 태권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1,149명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는데 종합성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초등부 우승 : 신흥국민학교
▲중등부 우승 : 성남동중학교
▲고등부 우승 : 태성고등학교
▲일반부 우승 : 성남정우체육관

(여자부)

▲중등부 우승 : 부흥중학교

▲고등부 우승 : 태성고등학교

40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경기도협회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풍생고등학교에서 18개시 대표 120명, 15개군

태권도 소식

정철희(충주성남), 최찬관(제천 청진), 한길수(청주산남), 신성환(제천동명), 이두환(충주연수)

▲ 중학부 : 신화강(청주중), 김상태(청주중), 정구명(청주중), 이주용(청주남중), 박상태(청주서원), 김윤동(충주미덕중), 민병기(청주중), 반상훈(청주중), 김재준(청주중), 구범모(충대사대부중), 신낙규(서원중)

18회 국민학교 대회 개최

제 18회 충청북도 국민학교 태권도대회가 충청북도 학생회관 강당에서 국민학교 유품자 39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품새겨루기와 겨루기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빼어난 기량을 보이며 우수한 선수는 다음과 같다.

▲ 겨루기 : 이상우(입석), 임홍규(서원), 반재희(중평), 유재형(서원), 신영근(서원), 오명우(봉정), 장민영(문의), 최찬관(청진), 한길수(산남), 신성환(동명), 박기범(남성)

▲ 여자부 자유겨루기 : 이미경(서원)

▲ 품새겨루기

1학년 서동준(율량), 2학년 김민수(사직), 3학년 이정연(죽향), 4학년 이재권(삼양), 5학년 김동석(덕벌), 6학년 최승명(주성)

▲ 종합성적

1위 청주서원국민학교, 2위 중평국민학교, 3위 : 청주 산남국민학교, 지도상 : 김종윤(청주서원

국교코치)

20회 중고등학교 대회 개최

제 20회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5월 21일 청주 중학교 강당에서 충북도내 중·고등학교 유단자가 출전한 가운데 품새 겨루기와 겨루기(남자부, 여자부)가 펼쳐졌다.

(종합성적)

▲ 중학교

1위 청주중학교, 2위 서원중학교, 3위 무국중학교, 장려 내수중학교

▲ 고등학교

1위 신흥고등학교, 2위 청주기계공고, 3위 광산공업고, 장려 부강공업고

(겨루기 부별 우승자)

▲ 중학교

오학만(서원), 김종성(청주중), 이주영(청주중), 연창수(청주중), 신영재(청주중), 이종현(청주중), 임대호(청주중), 최홍열(이월), 최복철(충북대사대부), 최낙중(청주중), 정우영(무극)

▲ 고등부

구지형(청주기공), 이양호(신흥), 이용(청주기공), 장동훈(세광고), 김영덕(신흥), 김동주(신흥), 김형로(청주기공), 김현호(신흥)

▲ 여자부 자유겨루기

전성아(제천여중), 박효진(무주중), 김원화(오창중), 김화영(가경중), 홍진(문의중), 최해주(중명여중), 홍영숙(미원공고), 주

선영(미원공고)

(품새)

▲중학교

1위 김호겸(청주), 2위 정진호(보은), 3위 권현규(보은), 3위 김택수(보은), 3위 주현경(봉영)

▲고등학교

1위 김호진(옥천공고), 2위 윤병열(부강공고), 3위 박완규(부강공고), 3위 박종오(부강공고)

전국 소년체육대회 2명 입상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4일합) 광주 직할사에서 '전국 소년·체전'이 개최되었는데 충북에서는 L-해비급에 출전한 충북 대사대부중의 구범모가 우승(1위)을 차지했고, 미들급에 출전한 김재준(청주중)이 결승전에서 아깝게 겨 2위를 차지했다.

도민체육대회 충주시 우승

제 33회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지난 6월1일과 2일 충주여중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위: 충주시 ▲2위: 청주시
▲3위: 청원군, 중평출장소

청주대, 대통령기 대학부 2위차지

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직할사에서 개최된 제29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태권도 대회에서 청주대학교 태권도팀은 많은 대학팀을 물리치고 결

승에 진출, 한국 체육대학과 최종 겨루기에 아깝게 겨 전국 대학부 2위를 차지했다.

청주대 대표선수로 참가한 선수는 민경환, 이정진, 신보현, 양원철, 신경수 이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제 46 회 도민체전, 천안시 우승

충청협회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공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 46 회 도민체전 태권도 경기를 개최하였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

이병철(천안시), 한인기(보령군), 성수영(부여군), 송성빈(예산군), 이수욱(대천시)

▲고등부

서상훈(천안시), 김성환(천안시), 김진성(대천시), 이희문(대천시), 정동혁(대천시), 김진희(예산군), 송영채(천안시), 차상영(부여군)

▲일반부

박양섭(대천시), 홍순석(천안시), 정학우(당진군), 박기정(천안시), 김기선(홍성군), 서재덕(예산군), 박수철(논산군), 성열찬(공주시)

▲단체성적

1위: 천안시, 2위: 대천시, 3위: 예산군

소년체전, 충남대표 3명입상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조선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충남대표 3명이 입상하였다.

입상자는 천안북중의 이진범이 밴텀급 1위, 대천중의 이수욱이 해비급 2위, 예산중의 이정대가 플라이급 3위를 차지했다.

전국체전 1차 평가전

충남협회는 제5회 도교육감기 대회겸 전국체전 1차 평가전을 4월 1일과 2일 대천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교부

유제홍(금산), 이준상(송강), 권오성(일북), 송상현(중동), 박재형(예산중앙), 강석만(예산), 강동석(중앙), 조담대(세도체), 함현민(중동), 임효곤(세도체), 지영환(부춘)

▲중등부

서원민(천안북), 이정대(예산), 김경원(예산), 최윤규(백제), 최동진(백제), 김현중(천안북), 신재운(시문), 최윤호(천안), 송정빈(예산중), 한대연(업장), 김종훈(예산)

▲고등부

서상훈(천안중), 김성환(천안중), 김국진(지곡), 이화훈(대천수), 정동혁(대천수), 이문우(장항공), 송영재(천안중), 차상영(충남체)

▲여자부

안주미(예산여중), 박재연(예산여중), 이정순(목천고), 정선희

태권도 소식

(당진여고), 송혜연(당진체), 송혜진(목천고), 김미란(금산여고), 이선복(금산여고)

(단체성적)

▲ 국교부

- 1위 : 예산중앙국민학교
- 2위 : 세도체육관
- 3위 : 공주중동국민학교

▲ 중등부

- 1위 : 예산중학교
- 2위 : 백제중학교
- 3위 : 천안북중학교

▲ 고등부

- 1위 : 천안농고등학교
- 2위 : 대천수고등학교
- 3위 : 충남체고등학교

▲ 여자부

- 1위 : 목천여자고등학교
- 2위 : 당진여자고등학교
- 3위 : 금산여자고등학교

▲ 최우수상 : 서상훈(천안농고)

▲ 우 수 상 : 유재홍(금산국교)

충남 소년체전 개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충남 소년체전 태권도 경기에서 천안시가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단체 성적 및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교부

유종림(공주), 이준장(온양), 이해국(예산), 김대우(예산), 박재형(예산), 김정식(천안), 이철희(천안), 조남대(부여), 오재도(천안), 류원호(공주), 지영환(서산)

▲ 중등부

서현민(천안), 이정태(예산), 이진범(천안), 김광호(서산), 김지수(당진), 성수영(부여), 김기찬(천안), 문정복(천안), 송성빈(예산), 한재연(천안), 이수욱(대전)

▲ 단체성적

- 1위 : 천안
- 2위 : 예산
- 3위 : 서산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전라북도협회

미국태권도협회 임원 전북 협회 방문

미국태권도협회 차기회장 이상철, 고문 박연희 사범은 4월 22~23일 서울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차 귀국,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를 방문하여 전북협회의 발전과 후원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KBS 전주방송총국이 기획한 인터뷰에 응해 “세계속의 전북태권도” 프로의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는데 이 방송은 약 30분간 특별방송됐다.

이 방송을 통해 전북협회 발전은 물론 세계속의 태권도 활약상을 자세히 설명되어 태권도인들의 긍지와 자존을 전북도민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감기대회 개최

전북협회는 5월 9일부터 11일

까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 14 회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교부: 김운형(군산남), 임재춘(무장), 남궁연(군산남), 전문기(동북), 전병철(합열), 박정호(무장), 백승만(덕화), 라상현(합열), 강재천(합열), 이종형(금평), 손정우(정읍남성)

▲중등부: 박상중(합열), 전동후(김제중앙), 이영석(합열), 서정관(군산), 윤성희(삼우), 김진호(김제중앙), 김원일(군산중앙), 정성원(전주), 박종삼(대성), 김용일(옥구서), 박봉희(소양)

▲남고부: 김은성(전북체), 강만수(전북체), 두기상(김제북), 이호형(김제북), 한성희(태인중), 김용근(고창북), 김용섭(정읍고), 봉대성(전주농)

▲여중부: 정민영(공음), 이미영(금성여중), 임영숙(산내), 이혜미(전주근영), 이신자(변산서중), 박선옥(만경여중), 박선화(홍덕), 박상미(금성여중), 김은정(금성여중), 조양희(금성여중), 전혜선(공음)

▲여고부: 박정희(김제북), 김보인(김제북), 전해경(김제북), 이은정(김제북), 임봉숙(부안여고), 양민자(고창여고), 김희정(김제상고), 유태옥(고창여고)

▲교육감배 지도자상: 임영희(합열중학교), 이수경(합열국민학교), 임석주(남원산내중학교), 박현구(고창북고등학교), 박장규(김제북고등학교)

〈전북 정철 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전국체전 1차 예선대회 개최

4월 16일과 17일 16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체전 전남대표 1차 예선대회를 개최하였다.

각부별, 1, 2, 3위에 입상한 선수들은 6월 25일과 26일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훈련장에서 다시 한 번 겨루게 된다.

태권왕 겨루기 대회 개최

4월 30일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단체 6팀, 개인 5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 11 회 국민학교 대항 태권왕기 겨루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대회의 종합우승은 여천서국민학교, 2위 여수 여문국민학교, 3위 무안운남국민학교가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 이승재(여천서국), 기자현(영광국), 김남형(여천서국), 김종현(조례국), 김대왕(청계서국), 박진호(여천서국), 김태현(여천서국), 김치홍(법성국), 장서진(여천서국), 배한빈(부영국), 백병조(백수서국)이다.

춘계 종별대회 개최

신인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춘계종별대회가 5월 7일 태권도 훈련장에서 개최되어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중부

김일삼(여수), 유정우(신북), 김기홍(여수), 김강영(서면), 배기혁(고금), 이홍석(유달), 소병훈(제일), 정영재(여천), 박기천(금정), 박윤수(여수)

▲남고부

김동철(목포상고), 함광훈(순천공고), 조규혁(목포상고), 윤강희(홍일), 김철유(마리아회고), 홍형중(금당), 백행근(목포상고)

▲여자부

강미경(여수상고), 송희정(순천여상), 김현(해인여중), 최영숙(서면중), 박지숙(신명여상), 전금희(여수여중)가 차지했다.

제 33 회 도민체육대회

3백만 전라남도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도민체육대회가 해남군에서 성대히 그 막을 올렸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15개 종목이 해남 곳곳에서 개최되었으며, 27개 시·군에서 참가하였다.

태권도는 해남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1위 여수시, 2위 목포시, 3위 해남군이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를 보면 박유천(승주군), 유창호(영광군), 한지환(영암군), 김원철(보성군), 강재원(담양군), 양재훈(동광양시), 장덕률(고흥군), 차영중(강진군)이 차지했다.

태권도 소식

승품(단)심사대회 개최

전남협회는 5월 29일 응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승품단 심사대회를 지역별로 실시하였다.

전남태권도훈련장 및 목포 유달정기장에서 실시된 심사대회를 통해 총 525명의 유품(단)자가 배출되었다.

품(단)별로는 1품 223명, 2품 94명, 3품 25명, 1단 103명, 2단 51명, 3단 18명, 4단 10명, 5단 1명이다.

제5회 태권도인 친선 체육대회 개최

전남태권도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매년 열리는 시·군대항 축구대회가 올해에는 구례중학교에서 각 시·군지회 임원 및 관장을 중심으로 10팀이 참가한 가운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6월 12일 개최되었다.

▼전남의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졌다.

종합우승팀을 보면 1위 승주군, 2위 여수시, 3위 곡성군이 차지했다.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경상북도협회

경북 신인선수권대회 개최

94년도의 첫대회인 신인선수권대회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체육관에서 초등부 126명, 중등부 145명, 고등부 155명, 일반부 12명, 여자부 44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대회에 출전한 신인 남·여 선수들은 평소 같고 님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선전분투하였다.

제6회 경북 소년체육대회

경북 꿈나무들의 힘겨루기 각축전인 소년체육대회가 3월 29



일부터 30일까지 구미에서 학도
체전과 분리, 개최되었다.

태권도경기는 경기장 관례로
대구체육관에서 초등부 63명,
중등부 123명, 총 186명이 출전
해 경기가 펼쳐졌다.

전국체전 1차 선발

제 75 회 전국체전 1차선발전
이 5월 3일 대구체육관에서 고
등부 70명, 대학·일반부 11명,
여자부 19명 총 100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체급별 1, 2,
3위자는 최종선발전에 출전하게
된다.

제 32 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3백만 도민의 화합잔치 무대
인 제32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가 두터운 인정과 예절바른 시
민정신을 앞세운 영주시에서
“알찬체전” “힘찬전진” “밝은미
래”라는 구호아래 성대히 그막
을 올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대향 23개종목 군대향 11개
종목이 주변 시·군으로 분산
개최되었다.

태권도 경기는 예천군 예천학
생체육관에서 34개시·군부가
출전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
다. 이번대회는 예천군협회 박
기용회장, 천호상 전무이사를
비롯한 예천군협회 이·감사들
과 영주시협회 김성덕 회장 등
태권도계 인사들의 합심된 노력
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했
다.

이번대회의 종합성적은 군부
1위 경주군, 2위 예천군, 3위 영
일군, 시부 1위 영천시, 2위 포
항시, 3위 영주시가 차지했다.

(경북 신웅우 편집위원)

경상남도협회

6월 심사 2,191명 합격

경남협회는 6월 5일 마산실내
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 2,191명의 합격자를 배출
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1,
172명, 2품 380명, 3품 68명, 1
단 376명, 2단 114명, 3단 48명,
4단 28명, 5단 5명이다.

4회 협회장기 대회 개최

경남협회는 6월 23일부터 25
일까지 3일간 마산실내체육관에
서 제 4 회 경남협회장기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여자부로 구분되어 체
급별 개인전 토너먼트, 단체전
복합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졌
다.

제주도협회

전도태권도대회 개최

제 29 회 전도태권도대회가 4
월 6일과 7일 양일간 한라체육

관에서 총 244명이 참가한 가운
데 치루어졌다.

전도태권도대회는 초등부(교
육대학장기) 중·고등부(교육감
기), 대학·일반부(도지사기)를
놓고 치루는 대회로 제주도대회
로는 가장 전통이 있는 대회이
며, 이 대회를 통하여 제주도태
권도를 대표하는 유능한 선수들
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제주도
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일꾼들을 길러냈
다.

양세훈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은
이 대회를 제주도태권도의 힘찬도
약의 기회로 삼아 주기 바란다
고 당부 하였다.

이번대회는 20년만에 부활되
는 단체대항전으로 치르어져 학
교 지역별 애교 애향심을 고취
시켰다. 특히 이 경기를 지켜본
태권도 원로들은 한결같이 과거
의 선수생활을 상기할 수 있어
서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각부별 우승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부우승: 제주동국민학교

▲중등부우승: 서귀중학교

▲고등부우승: 남주고등학교

▲대학·일반부 우승

:쌍용체육관

▲최우수선수상

:정명진(대정중)

한라전문대 태권도부 창단

지난 5월 4일 한라전문대학에
서는 제주도 대학부로서는 두번
째로 태권도부 창단식을 강당에

태권도 소식

서 거행하였다.

제주도협회 양세훈회장을 비롯한 태권도계 인사들과 도내 각기관장이 다수 참여하여 한라전문대학의 창단을 축하하여 주었다.

신용준 한라전문대학장은 대학사를 통하여 국기태권도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수선수를 양성하여 제주체육을 빛내어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태권도 명단)

- ▲ 단 장 : 신용준
- ▲ 감 독 : 최철영
- ▲ 선 수
 - 핀 급 : 이성민
 - 플라이급 : 강근배
 - 밴 텀 급 : 김홍수
 - 페 더 급 : 고대관
 - 라이트급 : 현정훈
 - 웰 터 급 : 허영수
 - 미 들 급 : 이재만

- 헤 비 급 : 고봉진
- ▲ 주요입상경력-'94 전국종별 태권도대회
 - 강근배(플라이급, 금메달)
 - 김홍수(밴텀급, 금메달)
 - 현정훈(라이트급, 금메달)
 - 고대관(페더급, 금메달)

〈제주 김동훈 편집위원〉

국기원

제 79 회 사범 및 3급 사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사범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20세 이상의 태권도 4단 이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200여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을 받았다.

매일 8시간씩 12일간의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자격 검정 시험을 거쳐 문화 체육부장관 발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부여된다.

2급 경기지도자 연수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15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급 경기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및 실시



교육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은 물론 체육발전을 기하고자 실시된 이번 교육은 12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국가자격검정시험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 발급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교부되었다.

세계연맹

경기과장에 이상현씨

세계연맹은 지난 5월 1일자로 경기부 이상현씨를 경기과장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이상현

- ▲ 미동국교 시범단 1기
- ▲ 서울체고, 한국체대졸
- ▲ 필리핀 East of Univ. 대학원졸. 현, 한국체대 사회체육대학원 재학
- ▲ 전, 사우디 석유광물대 체육강사
- 서울지하철공사 태권도부코치
- ▲ 93. 11. 1 세계연맹 입사

기 타

코치협의회 3대 회장에 양기모씨

한국태권도 코치협의회는 대통령기 대회기간중인 6월 13일 부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대회장 이용환씨(인천 광성중 교사)의 후임으로 양기모씨(인천체고 교사)를 3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양기모회장 약력)

- ▲ 서울체고, 한국체대 졸
- ▲ 4회세계대회 및 프레일드게임 우승



양기모

- ▲ 11회세계대회 한국대표팀(여자부)코치) 태권

“중국 최초의 태권도대회 개최”

김종삼사범 업무협의차 내한

'92년 태권도 불모지인 중국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김종삼씨(중국연변협회 총관장)가, 오는 8월 8일 중국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한 업무협의차 내한했다. '90년 중국연변대학 초청 시범을 계기로, 연변대학 체육학부 강사로 초청받아 태권도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김종삼사범은, 길림성 연길시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길시 조선족자치주에서 큰

호응을 받아 「연변태권도협회」와 「후원회」가 결성되어 중국태권도보급의 전초기지를 만든 김사범은 광주시태권도협회의 도움을 받아 연변대학에 태권도체육관을 건립하고, 중국전역의 조선족 중·소학교 체육교과서에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킨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중국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가입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태권

태권도 한마당 '94

경연대회 요강

대 회 요 강

1. 대 회 명 : 태권도 한마당 '94
2. 대회기간 : 1994. 11. 26(토)~28(월)
3. 대회장소 : 잠실학생체육관
4. 주 최 : 대한태권도협회, 한국관광공사
5. 후 원 : 한국방송공사(KBS),
대한체육회, 문화체육부

6. 대회종목

가. 개인종목

- 손날격과
- 주먹격과
- 발격과
- 멀리뛰어차기
- 높이뛰어차기
- 종합격과

나. 단체종목

- 일반품새
- 창작품새
- 태권체조 (호신술포함)

다. 격과 "최강자" 선발

- 손격과
- 발격과
- 묘기격과

7. 부 별

가. 소년부

나. 청년부

다. 장년부

라. 여성부

8. 시 상

- 가. 참가자 전원에게 대한 참가증서, 기념품
- 나. 부문별 우수상 시상 : 세부 종목별 결승 진출자 5명
- 다. 올해의 품새상 시상(창작품새 부문)

라. '94 격과최강자(3개부문) 선발 시상

9. 참가신청

가. 접수마감 : 1994. 11. 10. 17:00

접 수 처 :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

(전화 : 420-4271~3, FAX : 420-4274)

* 참가비 없음

나. 대표자회의 : 1994. 11. 26. 11:00

잠실학생체육관

* 기념품, 참가증서배포

다. 참가등록 : 1994. 11. 26(토) 13:00~14:00

잠실학생체육관

* 경연번호표 배포

참가자격 및 부별 참가종목

1. 참가자격

가. 소년부 : 15세 미만의 남·여 유포자

나. 청년부 :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남자 유단자

다. 장년부 : 35세 이상 남자 유단자

라. 여성부 : 15세 이상 여자 유단자

2. 부별참가 종목

부별 구분	세부종목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개 인	손날격과		○	○	
	주먹격과		○	○	
	발 격 과		○	○	
	멀리뛰어차기	○	○		
	높이뛰어차기	○	○		
	종합격과	○	○	○	○
단 체	일반품새	○	○	○	○
	창작품새	○	○	○	○
	태권체조	○	○	○	○

개인 종목 - 격파

경연종목

- 손 날 격 파: 붉은 벽돌 격파
(회망자는 기와 가능)
- 주 먹 격 파: 기와 격파(회망자는 벽돌 가능)
- 발 격 파: 송판 격파
- 멀리뛰어차기: 장애물 넘어 송판 격파
- 높이뛰어차기: 높이뛰어 송판 격파
- 종합 격 파: 고난도 기술이나 종합기술을 평가하며 격파물의 소재는 제한치 않음(주 경연자 1명, 보조자 대동)

평가

예선전은 지정된 기준을 통과한 자를 합격시키고 최종전은 예선전 기준 이상을 참가자가 신청하여 실시하며 상위자를 입상자로 한다.

시상

- 6개 부문별 결승 진출자 5명: 우수상 시상
- '94년 격파최강자 선발: 결승진출자 중 3개부문 최강자 선발 트로피시상
- 최강자 선발 기준

최강자구분	평가 방법	격파물
손 격 파	바른주먹, 등주먹, 손날 격파 합산	화 강 석 (25cm 판제)
발 격 파	옆차기, 앞차기, 뒷차기 격파 합산	송 판
요기격파	2가지의 종합격파 기술 시연으로 평가	

• 격파부문의 각종 기준

구분	손		발	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손날	주먹		소년부	성인부	소년부	성인부
격 파 물	벽 돌	기 와	송 판	송 판	송 판	송 판	송 판
규 격	적벽돌		두께 2cm	1cm	2cm	1cm	2cm
1차 예선	1매	10매	3매	2.5m	3m	2m	2.5m
2차 예선	2매	15매	4매	2.7m	3.5m	2.1m	2.6m
최 종 전	3매이상	16매이상	5매이상	2.7m초과	3.5m초과	2.1m초과	2.6m초과

단체 종목 - 품새

- 인 원: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경연종목

• 일반품새

구분 \ 내용	품 세	선택	지 정
유품자	태극-금각	1	고려, 태극 8장 중1
유단자	고려-일여	1	고려, 태백, 평원 중1

• 창작품새

기존품새와 유사한 형태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새로서 기존품새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공방 또는 무기를 든 상대와의 공방기술로 구성할 수 있으며 태권도 동작 원리에 부합되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 태권체조

태권체조는 태권도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품새와 창작품새의 구성과는 달리 일반인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 하되 형태는 전신운동으로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경연시간은 2~3분으로 제한하며 필요시 음악 또는 음향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평가

예선전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를 합격시키고 최종전은 고득점자 우선으로 입상자를 결정한다.

시상

- 3개 부문별 결승 진출 5개팀: 우수상
- 올해의 품새상 시상: 창작품새 결승 진출자 중 최고 점수 획득팀 선발

여름철 운동과 고온손상

여름철 운동중의 고온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먼저 더운날의 운동을 삼가야 한다. 기온이 28℃를 넘을 경우에는 운동을 취소하여야 하며 23~28℃인 경우에는 고온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철준 / 서울중앙병원 운동의학센터 소장,
가정의학 교실 주임교수
1978년 서울의대 졸업
1984년 전문의(가정의학)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운동생리학)

사람은 항온동물이므로 주변의 온도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한다. 체온은 뇌에 있는 체온조절중추가 혈관이나 땀샘에 있는 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러나 몸밖의 온도가 높거나 몸안에서 과도한 열이 만들어 질 때는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 체온의 상승을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체내에서의 에너지 대사과정이다. 체내 에너지 대사는 신체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많아지는데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는 절대안정시 에너지 생산량보다 20~25배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며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5분마다 약 1℃의 체온상승을 초래한다. 따라서 더운 여름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건강상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잃게된다.

운동중에 체내에서 생산된 열은 땀의 증발에 의해 소실된다. 특히 기온이 29℃이상으로 올라가면 체온의 조절은 전적으로 땀에 의존하게 되는데 34℃이상이 되면 오히려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체온은 급격하게 상승한다. 물론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기온에서도 심한 체온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땀의 증발이 둔화되므로 체온의 상승을 부채질한다.

무더운 여름날이나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을 할 경우 생산된 열을 방출하기 위하여 인체의 혈액순환과 발한작용이 활발해진다.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시간당 0.5~2.0ℓ의 땀을 흘리게 되며 이는 탈수와 전해질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

다. 탈수는 혈류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혈류량의 감소는 발한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발한량의 감소는 증발에 의한 열방출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순

환히탈과 체온상승을 초래해 소위 고온손상에 걸리게 된다. 이러한 고온손상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는 비만인, 체력이 약한 사람, 이미 탈수상태에 있는 사람(예: 이노제 사용자), 고온에 적응되지 못한 사람, 어린이나 노인, 위장염이나 상기도 감염증이 있는 사람, 고온손상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 등이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발한장애가 있는 환자에 잘 발생한다.

운동중 발생할 수 있는 고온손상에는 1)열경련(Heat Cramps), 2)열실신(Heat Syncope), 3)열탈진(Heat Exhaustion), 4)열사병(Heat Stroke) 등이 있다. 열경련은 과도한 발한과 함께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것으로 주로 운동중 많이 사용하는 다리나 팔의 근육에 잘 생기는 간혹 복근에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체온은 정상상을 유지한다. 열실신은 허약, 피로,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때로는 시력장애, 창백, 실신 및 체온의 상승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열탈진은 수분손실형과 염분손실형으로 나뉜다. 수분손실형 열탈진은 발한감소, 체중감소, 구강건조, 갈증, 체온상승, 허약, 조정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애를 보이며 소변은 농축되어 적황색을 띄게 된다. 염분손실형 열탈진은 두통, 현기, 피로 등을 호소하며 때로는 구토와 설사, 실신, 근육경련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염분손실형 열탈진은 대개 3~5일만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열사병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응급조치를 요하는 병이다. 증상 및 증후로는 체온의 증가(중심 체온이 40℃ 이상), 근 무력, 불수의적인 사지운동, 경련, 환각 또는 혼수, 구토, 설사, 그리고 빈맥 등을 보인다.

이러한 고온손상의 치료시 초기에 평가해야 될 사항으로는 맥박, 혈압, 의식 수준, 직장내 체온 등이다. 그리고 체온하강의 속도가 회복속도와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더운 여름날 운동을 할 때에는 이들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열경련 처럼 가벼운 경우는 시원하게 해 주고 근육이완과 함께 수분을 경구적으로 투여해 주면 된다. 그러나 열사병과 같이 위독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도를 유지하고 직장 체온이 39℃가 넘으면 즉시 정맥내 수액 투여, 환기, 찬 수건과 얼음 주머니를 이용하여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여름철 운동중의 고온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먼저 더운날의 운동을 삼가야 한다. 기온이 28℃를 넘을 경우에는 운동을 취소하여야 하며 23~28℃인 경우에는 고온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복장은 가볍고 헐렁한 것이 좋으며 흰색이 좋다. 화학섬유보다는 면과 같은 자연섬유로 된 옷을 입도록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고온에서의 운동시에는 체온조절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데 격렬한 운동시 한시간에 약 2ℓ 이상의 땀을 흘린다. 이때 땀으로 인한 수분손실이 체중의 2.5~3.0% 이상이 되면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오르며 고온손상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탈수와 고온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운동전에는 물론 운동중에도 자주 수분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50~6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에서는 수분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섭취하는 음료는 저장성, 저가당(2.5g% 미만), 그리고 저온(5~10℃)인 것이 좋다. 미지근하거나 더운 물, 당분이 많이 함유된 물, 그리고 염분 등의 무기질이 함유된 물들은 위에서 오래 머물러 복부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동중에는 순수한 찬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시작 30분전에 400~600ml의 물을 섭취하고 운동중에는 10분~15분 간격으로 100~200ml의 물을 섭취한다. 그러나 1시간에 800ml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운동후에는 중증도의 염분이 포함된 음식과 땀으로 소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필수 무기질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한다. 그러나 운동중에 소금을 먹을 필요는 없다. **태권**

태권가족



그이향원





호호 세사사 새옹지마!

우리들의 비겁자

글 · 김병총
그림 · 이항원



우 리들은 신입사원 강진호를 두고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자라고 쏘대거렸다. 적어도 여행이 끝나는 하루 전날까지는 그가 바보이기나 비겁한 자식이라고 밖에는 생각될 수 없었다.

때마침 절묘한 연휴였다.

“강형도 따라볼겠소?”

“코스가 어떻게 돼요?”

입사 한 달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서먹서먹한 그의 태도가 안스러워서 건성으로 물었는데 그는 대변에 반기며 나왔던 것이다.

“속초에서부터 시작해 동해안을 타고 정처없이 흘러내려 갈까 합니다.”

“도보여행이군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진호는 우리들 여행팀에 끼어들었던 것이다. 구성원들로는 전산실 아가씨 네 명과, 자재부 생산부 총무부 등등에서 한두 명씩 차출된 일곱 명의 남자들이 전부였다.

여행이란 여차피 모험을 동반한다. 유쾌한 일도 있겠지만 불쾌한 경험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아가씨들을 잘 보호해야 하는게 우리들의 의무인 거요.”

누군가가 그렇게 떠벌렸을 때 강진호는 씨익 웃기만 했었다. 그것이 그의 반응의 전부였다. 그는 도무지 말이 없었다. 누구든 그에게 질문을 던질 때만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말만 내뱉었다.

“정말 멋대가리 없는 친구군.”

속초시에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우리들은 강진호에 대한 관심을 포기했다. 따라오는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기분들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피곤을 핑계로 속초 해변에서 저녁을 사 먹은 후, 남쪽으로 걸어내려 오다가 장소 이름도 모호한 해변에다 세 개의 천막을 치고 몇 병의 소주를 잔 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고 서둘 때였다.

“내일의 행군을 위해서 오늘은 일찌감치 취침.”

연장자인 박계장이 명령을 내렸다. 바로 그 때 백사장 위쪽 한길로부터 짜아 하는 주정꾼들의 소리들이 몰려왔다. 다섯 명의 우리들 또래 녀석들이었는데, 그들은 우리 쪽으로 다짜고짜 몰려오더니 시비부터 불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형씨들, 이러면 쓰나. 이런 데까지 기집애들 데리고 와서 나쁜 짓을 하면!”

우리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자들 모두가 각목 한 개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지?”

“불 거 없잖아. 일단 시위부터 해놓고 불 일이야.”

놈들과 몇 차례의 입씨름을 벌인 후 우리들은 겁나서 후덜 후덜 떨리는 손으로 놈들을 에워쌌다.

그런데 사내는 우습게 진정되었다. 놈들도 술김에 별 생각없이 맨손으로 쳐들어 왔기 때문인지, 우리들의 뜻밖의 강공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게다가 여자들의 비명에도 놀랐기 때문인

지, 그들보다 우리숫자가 많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두들 슬금슬금 뒷꿈두니를 뻗 것이었다.

“안되겠어. 철수한다. 경찰의 도움을 받기엔 너무 외진 곳이야. 놈들이 다시 쳐들어 올지도 모르겠고.”

박계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강진호를 의식한 것은 민가 쪽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짐을 모두 꾸리고 나서였다. 갑자기 한길 쪽에서 터벅 터벅 발자국 소리가 나다가 했더니 훌쩍 그림자 하나가 뛰어 내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그놈들인가 해서 긴장하며 각목을 찾아 들었다.

“철수하게요?”

뒤통에다 강진호였다. 박계장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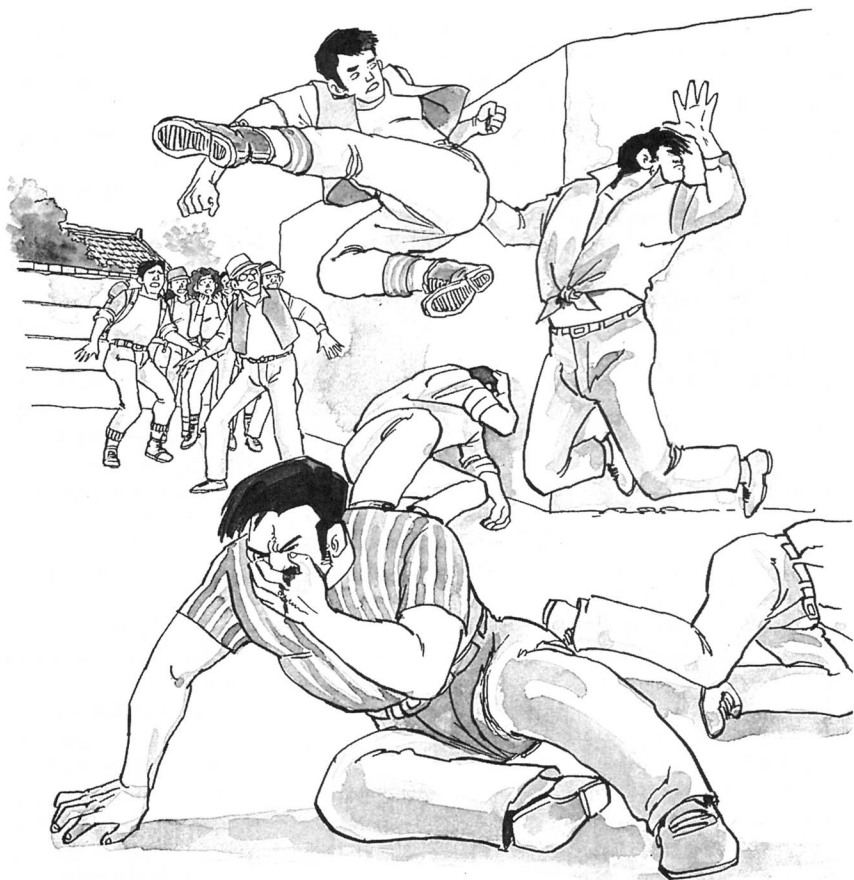
“강형, 어디 있었어?”

“근처에 경찰이나 군 초소가 있나 하구 …….”

“여보서, 강형! 우린 모두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동안 그래, 강형 혼자서 도망쳤단 말요!”

강진호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경찰도 군인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우리들의 비겁자였다.

그런대로 우리들의 여행은 즐거웠다. 지치면 쉬고 배고프면 밥 지어먹고 무료하면 김형이 통기는 기타에 맞춰 합창하고 해가 저물면 민박이나 공동야영지에도 천막을 쳤다. 오손도손 인생도 나누고 해풍 속에서 훌쩍훌쩍 설병을 기우렸다. 고즈넉한 낭만과 쾌적한 모험으로 해서 우리들의 행진은 가히 성



공적이었다.

그러던 귀가 하루 전이었다. 다음날이면 강릉에서 버스로 귀향할 것이었다. 방내골을 넘어 경포대로 향해 우리들은 걸어내렸다. 해가 지려면 두어 시간은 더 있어야 될 시간이었다.

“너희들 뛰야!”

문득 갈길을 막고 나서는 일행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여섯 명의 사내들이었다. 인상들도 고약할 뿐더러 덩치들도 모두 떡대였다. 무엇보다 그들 모두는 흉기들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들은 절망적이었다. 그들과 대적해볼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너희들을 다치게 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만 똑똑히 알아 뒤! 모두 저쪽 공터로 따라 들어 와! 어서!”

두목인 듯한 자가 눈을 부라

리며 소리쳤다. 우리는 거의 죽은 상태였다. 우리들이 공터로 끌려 들어가서는 더더구나 행인들의 구원의 손길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어찌지?”

“틸리더라도 차비만 용서해 달라고 빌어볼 수밖에.”

우리들 끼리 속삭였다.

바로 이 때였다. 파랗게 질려 있는 우리들을 해치고 우리들의 비겁자가 앞으로 쏙 나선 것은.

“무얼 요구합니까.”

“자석이 그토록 눈치가 없어? 있는 돈 모두 내 봐!”

“그건 곤란한데.”

“뭐야?”

우리들은 그 순간 강진호가 비겁자가 아니라 바보 멍청이라 생각했다. 전날의 팔랑팔랑한 침입자가 쳐들어 왔을 때도 도망쳤던 그가 오늘의 강적을 만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맞서다니. 버마재비가 수레바퀴에 대들다니. 이제 강진호는 죽었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이 그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 주머니 돈을 꺼 내가 보라고 밖에 할 말이 없겠군.”

“이 자식이!”

우리가 놈들의 발악을 듣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앞에 선 자의 주먹이 강진호의 왼쪽으로 날아든 것과 동시에 사뿐 피한 강진호의 눈부신 움직임이 시작 된 것이다. 한놈 두놈 세놈 네놈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한쪽으로 피해 물리면서 강진호의 뜻밖의 활약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 왼발앞차기, 회전뒷차기, 얼굴찍기, 받아차기, 오른발돌려차기, 밀어차기, 왼발얼굴되차기, 팽이차기, 내려차기, 뛰어몸돌려차기, 오른발턴 왼발찍기, 뿐만 아니었다. 수도로, 정권으로, 이마로 이영걸이 ‘태극권’ 쓰듯 바쁘게 황홀하게 삼시에 자유자재로 여섯 모두를 찍어버렸던 것이다.

맹장 밑에 약졸 없다. 혼을 빼앗겼던 우리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놈들을 때려부수자!”

우리들 모두는 나뿔구러져 있는 놈들을 향해 삼시에 치달렸다. 여자들까지도 뒤뚱거리는 놈들에게 배낭을 벗어 휘둘렀다.

놈들 모두는 절뚝거리며 도망쳤다.

삼시에 우리들의 영웅으로 변신한 강진호에게 박계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숨씨가 있는 줄 몰랐소!”

“자랑할 일도 못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날 해변에서 놈들이 쳐들어 왔을 때도 대체 어디에 있었소?”

“모래 위에선 몸쓰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길목을 지켰다가 조금씩 손봐 준 후 쫓아보냈지요. 다신 못오게요.”

“그새 우리가 당하면 어쩔 작정이었소?”

“아닙니다. 사태를 위해서 보고 있었습시다. 힘을 합쳐 잘들 하시네요. 뭘”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웅을 감동어린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대견**



김병중

1939년 마산 출생

고려대 철학과 졸업

「문학사상」 제1회 신인상 소설

‘빨간우산’ 당선

작품에는 ‘불갑’ ‘내일은 비’ ‘검은 휘파람’ ‘달빛자르기’ ‘화요일의 사내들’ ‘춤추는 맨발’ ‘대검자’ ‘소설·무에도보통지’ ‘사기(전10권) 평역’ 등 외 다수.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서 태권도에 관한 연구

신 창 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외교안보 전공

1. 연구목적

동양문화로서는 드물게 서구 세계에 광범위하게 침투, 3,800여만(국내회원수 포함)이라는 회원수를 확보할 만큼 세계화된 태권도는 토착문화의 유일한 세계화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 국가 이미지의 우호적 형성이라는 외교적 의미를 비롯, 친한파 인맥의 조성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태권도가 한국외교에 끼친 영향은 일반인의 인식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나, 한국민 특유의 “자문화 비하의식”으로 인해 태권도가 이룩한 각종 성과들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온 경향이 강하며, 이는 학계에서의 무관심이라는 요인과 합쳐져서 그간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지조차 않았다.

외교자원이 극히 빈약했던 50~80년대 한국문화외교의 적극적 수행자들은 외무부 문화관계 부서 직원이 아닌 “태권도 사범”들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대 공산권 비밀 외교채널이 형성되었고 비동맹국가들과의 교섭창구로서 유효히 활용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상·하의원 및 대통령의 스승으로서 막후 교섭의 창구를 마련했고, 비동맹 공산 국가의 군부 및 정계감시 역할까지도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현실에 입각하여 태권도가 그간 이루어 놓은 외교적 차원의 업적을 학문적 입장에서 정당하게 평가하여 “사실인식”을 유도하고 그 내재적 특성의 분석을 통해 외교적 효용 극대화에 기여해 온 각종 요인들을 산출해 내어 한국 국가 이미지에 태권도 세계화가 긍정적 기여를 했는가의 여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태권도의 세계화의 과정

태권도의 세계화의 과정을 논의의 편의상 다음의 4단계로 시기 구분을 하여 보았다.

제 1단계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는 태권도의 해외 침투 단계라 볼 수 있다.

제 2단계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 이는 태권도의 해외 정착 단계라 볼 수 있다.

제 3단계는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단계로, 이 단계는 사실상 세계화 완료 단계로 볼 수 있다.

제 4단계는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로, 태권도는 더 이상 한국만의 문화가 아닌 세계의 문화로서 세계 각국에 토착문화로서 인식되어지고,

한국은 사실상 종주국의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어 종주권 상실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3. 외교적 역할

태권도가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진 것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국가 정책적 측면보다는 우연히 이루어진 우발적 사건의 측면이 강하다.

태권도의 외교적 기능 제고의 배경은 첫째, 태권도는 단순한 전투기술이나 스포츠가 아닌 한국적 이데올로기를 담은 문화전달 매체적 성격을 띄었으며 그러한 태권도의 내재적 이데올로기가 높은 교육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이다. 태권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민족주의적, 반식민주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한국 전통의 유교적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의 가치, 믿음체계, 인식구조 및 행동양식을 담고 있는 한국의 토착 문화인 태권도는 단순한 기술을 전달하는 기술 연수 초정교육이나, 의료진 파견, 무상원조, 공연예술단 파견 등의 수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문화적 수단인 것이다. 태권도가 구미에서 한국적 가치관을 심어 줌으로써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태권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태권도는 공적인 정부 행위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사범들이 많이 진출하지 아니하여, 주로 정부 파견 사범이 주종을 이루는 제 3세계권을 제외한다면,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는 거의 완벽하게 민간 채널만을 통해 이루어져 공적인 행위는 거의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태권도인에게서 보여지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 혹은 국가주의적 성향도 태권도가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한 이유이다.

한국인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태권도인과 일반인에 많은 차이가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대답

한 것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한국인임을 보통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태권도인이 적은 수치를 보여 태권도인들의 상대적으로 강한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

넷째, 태권도는 각종 순회 공연, 스포츠대회 참가, 문화 사절단 등과는 달리 “지속성”을 띤 외교의 문화적 수단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태권도는 범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 수단이다. 외교의 문화적 수단이 어느 한 민족, 한 문명권에서만 국한되어 수용이 가능하거나 타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치체계를 지닌 수단은 결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비무장 전투”라는 개념에 기초를 둔 인류 보편적 적수 공권이며, 그 기술에 있어서도 자기류만을 주장하는 편협함이 없는 실용적이며 개인적 다양성이 아주 강한 열린 개념의 무술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에서부터 구미의 백인,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여섯째, 태권도는 파괴적이며 전투적 성격이 강한 무술이라는 점이다. 태권도의 이러한 실용적 실제적 성격은 월남전 참전의 백병전 경험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태권도는 그 시합 초창기부터 직접 타격 방식을 택하고 있었던 관계로 타격 지점 한지 앞에서 멈추는 시합을 하는 타 동양무술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갖추게 되었다.

일곱째, 태권도는 유사 종교적(pseudo-religions) 성격을 띄고 있었기에 현지인들에 강력히 침투할 수 있었다. 최근 태권도의 스포츠화 경향으로 이러한 유사종교적 속성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외국의 경우 아직도 이러한 유사 종교적 성격은 크게 남아 있다. 이러한 유사 종교적 성격은 태권도의 엄숙주의, 기술의 비밀주의적 성격, 정신수양의 강조, 침·뜸의 시술, 기(ki)의 강조 등이 주요 요인이다.

여덟째, 태권도는 각종 기술 지원, 영화, 음악, 경제 지원 등의 문화적 수단과는 달리 “동양적 사제관계”를 수립한다는 점이다. 쌍무적 계약관계에 능숙한 외국인들에게 개인이익 등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혈연 관계와 같은 “동양적 사제관계”는

태권도가 아니면 맺어지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인 것이다.

태권도 외교의 정책적 목표는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의 존재 그 자체를 알리는 것과 한국 국가 이미지의 형성 및 제고, 현지 고위층 직접 접촉을 통한 외교 채널의 확보 및 아국 지지 기반의 확대, 주재국 정세 및 동향 관찰 또는 정보수집 기타 이해와 선린의 증진이라는 문화 외교의 일반 목표가 포함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접수국의 친한화 유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수적으로 현지 교민의 민원 해결 주선, 비밀 외교 및 권력형 로비의 창구로서의 기능 등은 태권도 외교의 2차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4. 문화 외교적 성과

태권도 외교의 문화외교적 측면의 성과들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첫째, 국위 선양에 따른 한국 국가 이미지의 제고, 둘째, 한국 자체의 홍보라는 측면에서 세계수련 인구와 세계연맹 가맹국수 그 자체, 셋째, 스포츠 외교의 측면에서 국제대회 창설 및 가입을 통한 국제대회의 경기 성적, 기록 및 홍보 등이 될 수 있다.

첫번째,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한국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는 한국인 사범에게 배운자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현지인 사범과 한국인 사범 모두에게 배운자, 그리고 세번째가 현지인 사범에게 배운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아 현지인에게 태권도를 배운자도 대 한국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태권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의식 외에도 대부분 현지인 사범들이 1세대 혹은 2세대 사범이어서 한국인 사범의 영향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태권도 수련 커리큘럼에 있는 정신교육의 내용들이 한국적 이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이 국민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했을때, 태권도의 국가이미지 제고는 실제로 문화 외교적 측면의 성과중 가

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두번째, 한국의 존재 그 자체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추구하고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수련 인구 및 세계 태권도 연맹 가맹국의 확보 자체가 태권도의 문화 외교적 측면의 성과라 볼 수 있다.

세번째, 문화 외교의 하위 개념인 스포츠 외교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태권도는 다른 어느 종목보다도 훌륭한 경기 성적을 국제 경기 대회에서 보여 주고 있다.

태권도가 여타의 문화적 외교수단에 비해 훨씬 높은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1992년 초 비동맹을 대상으로 태권도 사범 정부 파견 사업을 관장하는 외무부 산하 기관인 국제 협력단에서 실시한 태권도 외교의 성과와 효율성 등에 대한 현지 공관들의 종합 평가 및 의견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는 그러한 사실들은 더욱 확고히 뒷받침한다.

정파사범들이 활동하는 국가의 현지공관들은 태권도 사범 파견 사업이 타 수단에 비해 보다 효율적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비동맹 외교에 있어 혁혁한 업적을 남겼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동맹 외교에 있어서의 태권도의 성과들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대북한 전체의 효과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중후반까지 비동맹 국가에서의 외교적 우위를 지켜오던 북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유력한 수단으로서 태권도가 사용되어 진 것이다.

둘째, 비동맹권 국가의 일반 국민들과 고위 지도층 등에게 우호적 현관관을 심어주고 대 한국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최고위층(국가 원수급 군부, 각료 특수기관)에 직접 접촉을 통해 “동양적 사제관계”를 형성하여, 주재국내 ‘친한파’ 인맥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대 공산권의 경우, 소련 붕괴이후 동구권 및 친소 국가들과의 급격한 국교수립 러시아전까지 대공산권과의 교류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전 미·소 양국 체제가 극에 달하고 미·소의 핵 잠수함이 대양에서 상어처럼 쫓고 쫓기던 냉전의 한복판에

서 우리가 대미 의존적 안보 외교를 펼치던 당시에도 대 공산권과의 대화 창구는 존재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외교채널이었다. 그 중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은 역시 지속성을 가지고 현지에서 뿌리 깊은 인맥을 형성해 갔던 태권도 사범들이었다. 당시 태권도 외교는 워낙 비밀 외교적 차원에서 수행해 갔던 안보 외교의 핵심이었기에 오늘날에도 그 전모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자료에의 접근은 어렵다.

5. 권력형 로비의 측면

태권도 외교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로비의 측면의 성과들은 그 성격상 공식적인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거기에 직·간접으로 관여 했던 사범들의 증언을 통해 그 대강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태권도가 권력형 로비, 즉 비밀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성격상 권력기관(대통령 경호실, 각료·특수전문기관, 국회의원 등 사회 엘리트들의 고급 스포츠로서 수련)에 밀착되어 있고, “동양적 사제관계”의 형성에 의해 친한파 인맥을 일거에 형성시킨다는 점들이었다.

각국의 고위층들의 태권도 수련 현황은 예상보다 훨씬 대규모이며, 계층에는 4단·5단의 고단자들도 다수있는 바, 그들은 모두 한국인 태권도 사범과 ‘동양적 사제관계’를 맺고 있어, 비밀외교 창구로서의 기능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6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회원 30만 규모의 ATA(American Taekwondo Association)를 창립하여, 미국 태권도의 거목으로 성장한 이행웅 사범의 경우 현직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의 태권도 사부로서 인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미국 민주당과 한국과의 거의 유일한 교량으로써 기능하여 왔다.

6. 경제 외교적 측면

태권도 외교의 경제 외교적 측면의 성과를 분석

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1차적 기능)과 다른 하나는 태권도를 매개로 한 제3세계 비동맹 신흥수교국의 경제지원을 통한 정치적 목적(외교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2차적 기능).

타국에서의 아국 기업의 진출을 촉진 지원하여, 현지 정부 관계자 투자 대상 주선, 상품시장 개척 망 소개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경제 외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기능은 제1차적 기능으로써 한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들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제3세계에 대한 정부 소속 사범의 파견은 그 비용과 급여를 한국 정부가 모두 부담하여, 사범 파견자체가 경제협력 또는 무상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태권도 용구, 훈련 시설의 무상지원 등은 그 경제협력적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태권도 경제외교의 2차적 기능으로써 태권도를 통한 경제 지원으로 정치적 기능(외교적 기능)을 달성하는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세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를 주 업무로 하는 국제 협력단에서 제3세계 태권도 사범 파견의 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다.

7. 태권도 외교의 문제점

전장에서 언급한대로 축구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맹국을 가진 태권도는 그 회원 수가 무려 3800여만에 육박하고 있다. 태권도 외교의 성과는 지금까지의 논의로 그 성공적 측면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한 성공적 측면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오늘날 태권도 외교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압축,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잉 상업화의 현상, 둘째, 범국민적 자부심과 그 인식의 저조 현상, 셋째, 그 역사적 정통성의 위기 현상이다. 이중 태권도 외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역사적 정통성의 위기 현상이

며, 이 세가지 외의 문제점들은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했다.

8. 태권도 외교의 개선 방향

태권도 외교의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기존의 민간 조직망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일, 둘째, 기존의 제3세계 대상의 정부소속 태권도 사범 파견 사업의 강화, 셋째, 중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윗돌한 경기력의 유지·향상 및 이를 위한 선수층의 확보와 매스컴 등의 지원 강화, 넷째, 태권도인들의 정신교육 강화와 재교육 실시, 다섯째, 근대 태권도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역사 연구의 축적과 정립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문화적 외교 수단의 성격상 민간채널을 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을 감안했을 때 세계 태권도 연맹에 관계부처 소속의 정부관리를 파견하여 상주케 하면서 태권도 사범 파견 사업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 협조케하여 세계 태권도 연맹과 정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사료된다. 타분야와 다른 태권도의 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 정책이라 본다.

제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 정부 사범의 경우 최근 들어 점차 그 수가 감소되고 있다. 인원 감소의 표면적 이유는 예산부족을 들고 있으나, 실제 상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로 대 공산권 외교와 비동맹권에서의 대북 견제의 유력 수단이었던 태권도의 외교적 효용이 약화되었다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어도, 국가 이미지 제고의 측면과 최고위층에의 직접 접촉이라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시각은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파견국은 총 15개국으로 89년의 20개국 이 92년 현재 15개국으로 줄어들어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장에서 본 현지 공관들의 태권도 외교에 대한 높은 인식과 평가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정부

내의 태권도외교에 대한 사실인식의 부족이 그 원인이다. 정부의 태권도 외교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과 정부소속 태권도 사범 파견 인원 증원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태권도 외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2년 계약 갱신제에서 탈피, 정식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여 일단 임명된 사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복무케 하여 계약 갱신제를 폐지해야 하리라 본다. 이는 태권도 외교에 있어서 지속성이란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해당 사범들의 복지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부 사범의 파견 지역도 아프리카, 중동등의 편중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동구, 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은 태권도인들의 자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태권도 협회와 세계 연맹 그리고 정부에서는 파견 사범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고 국가적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보급에 임하게끔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파견 사범들의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리라 본다.

9. 맺음말

한국 전통의 문화 양식으로서 유일하게 세계화되어 한국 외교의 주요한 문화적 수단으로 기능하여 온 태권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일반, 그리고 정부에서조차도 그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왔다.

본 논문은 태권도 외교의 성과와 합목적성·효율성 등에 관한 '사실인식' 유도에 치중하여, 글이 전반적으로 '사실나열'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으며, 이는 본 논문의 커다란 제한점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깊이 있고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인류문화사의 흐름이 잘 보여 주듯이 통상적으로, 일국문화의 대외적 침투력은 그 국가의 국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중형국가로서는 예외적으로 강대국에 버금가는 문화적 침투 수단을 보유하여, 한국 토착문화의 세계화라는 대업

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태권도가 아니었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권도 세계화의 문화 공격적 측면이 한국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서 태권도가 기능할 수 있었던 '심층동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태권도 외교의 제반 성과들은 모두 태권도가 한국의 '토착문화'였다는 사실하나에서 원천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태권도 이외에도 현재까지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각종 토착문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관심의 확대가 요청되며 그것이 달성될 경우, 제2, 제3의 태권도와 같은 훌륭한 외교의 문화적 수단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문화 제국주의를 가능케 했던 주요 요인중의 하나가 자국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자부심 그리고 깊은 애정 등이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대,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서구문화 일반도의 문화 전달 매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자문화 비하의식으로 점철된 국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착취적인 서구의 지배문화를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 서구의 저질 대중문화 유입의 주요 창구로 기능하는 매스컴의 왜곡된 방송태도가 시정되어지지 않는 한 자문화 비하의식과 서구문화 우월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좌

우 되어온 한국의 왜곡된 현실의 타파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통문화의 부활과 그 세계화가 실현되었을 때 그것들이 가져올 추가적 이득들에 대해서는 태권도 외교의 그것이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아, 한국 외교의 모든 수단 가운데 태권도는 그 효율성과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태권도가 한국의 '토착 문화'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태권도 외에도 각종 토착문화의 부활과 그 세계화의 도모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의 태권도가 보여 준 문화적 게릴라와 같은 비조직적 침투를 지양하고, 보다 조직화되고 통합된 문화외교의 체계가 필요하며,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그 세계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지금까지의 그 커다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외교에 대해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학계의 반성도 또한 필요하다고 보며, '태권도 외교'로서 대변되는 토착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적 외교 활동에 보다 깊은 이론적 뒷받침과 학문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리라 본다. [태권]

동시

우리들의 꿈

노원호

푸른 하늘을 보아야지.
구름 한 점 없는
마알간 하늘도 좋지만
눈이라도 쏘을 듯한
저울 하늘도 보아야지.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는 날 밤에는
가슴속에 잠겨 있는
수많은 마음의 별도 보아야지.

비바람을 이겨 내고
눈 덮인 벌판에 서서도
늘 가슴에 꽃 한 송이 꽃고 사는 것

그래서 마음 한국석에 놓여 있는
작은 별을 만나는 일
그 일도 바로
우리들의 꿈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꿈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 미국 「코리아 페스티벌」에 참가 “태권도 시범으로 미국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

이 규 형 / 미동국민학교 태권도부 감독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초청으로 코리아 페스티벌 에 참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페스티벌 조직위에서는 국가대표 태권도어린이 시범단(서울미동국민학교)을 초청 미국 3개도시(로스엔젤레스, 뉴욕, 휴스턴)에서 5월 4일부터 18일까지 12차례의 순회시범을 보였다.

93년 9월부터 94년 8월까지 전해없이 일년간 계속되는 코리아 페스티벌은 한국 국보급 예술품 전시회, 공연예술, 영화상영, 강연과 좌담회 그리고 가족과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한국문

화와 현 생활의 풍요로움과 다양함을 조명하는 것으로 뉴욕 및 7개의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전 미국에 거행되고 있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코리아 페스티벌은 한국의 뛰어난 예술과 예술인들 그리고 저명한 정치인, 학자, 기업인들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한 세계문제에 대한 한국과 한국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볼때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한국문화의 고유성이 중국, 일본문화와 혼동되는 점들을 시정하고자 이 행사가 계획되었다.

즉,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코리아 페스티벌을 통하여 한국의 뿌리깊은 역사에 대하여 미국인

들의 인식을 일깨워 한국문화의 다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부응하여, 5월 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유 무도인 국기 태권도의 시범공연과 미래의 주역이될 꿈나무들인 미국공립학교(공립국민학교중에서 5개교를 선정) 학생들과 서울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들과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 어린이들의 친분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로부터 한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초청받게 되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서울미동국민학교 김춘보교장은

대표시범단 22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해 주었다.

교장선생님은 “자랑스런 국가대표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인 미동국민학교어린이가 여러분,

이번 미국 3개도시 로스앤젤레스, 뉴욕, 보스턴에서 약 15일간 12차례의 한국전통무도인 국기태권도 시범을 통하여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고, 동시에 세계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 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교육적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다른 면에서도 남에게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여 한국어어린이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어린이들과의 교류, 교실 수업 못지 않은 산교육

휴스턴 Askew 국민학교에서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 시범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코리아 페스티벌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미국인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소개하는 행사로 많은 미국인들은 이 행사를 통해 유구한 전통 무도인 태권도를 접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에서 오신 태권도 어린이가 대표의 시범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서로서로 마음과 행동을 일치하여 민첩한 몸놀림 고난도 격파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셨고 또한 상대의 인격을



미국 국민학생들 앞에서의 격파 시범 모습

존중하고 예의 범절을 미국 어린이들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말씀하셨다.

우리 시범단어린이들은 이 행사 참가를 위하여 약 15일 남짓한 날들을 학교수업에 빠지게 되었지만 나라의 기둥이 될 꿈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미국의 국민학교에서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미국 어린이들과 함께 수업도 같이 받고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방법과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을 보고 느끼며 점심 시간에는 급식을 질서있게 같이 먹으면서 미국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을 접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꿈을 키우며 배움에 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중요하고도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서로 국적과 인종, 언어, 환경 등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으나 서로 한마음이 되어 친분을 나누며 한·미 양국의 문화를 교

코리아 페스티벌 시범 일정표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 5월 4일 : L.A도착
- 5월 6일 : L.A국민학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 5월 7일 : Sunset Canyon에서 시범 공연

New York (뉴욕)

- 5월 9일 : 뉴욕 P.S 213 국민학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 5월 10일 : 뉴욕 P.S 116 국민학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 The Asia Society 극장에서 시범 공연(저녁)

- 5월 11일 뉴욕 : 뉴욕 P.S 102 국민학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Houston (휴스턴)

- 5월 13일 : Houston국민학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 5월 14일 : Houston Asia Society 협찬으로 시범 공연
- 5월 16일 : L.A도착 디즈니랜드·유니버설관광
- 5월 18일 : 6한국 도착

류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는 교실수업 못지않은 산교육이 되었다.

특히 미국어린이들이 우리 시범단을 위해 7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한 한국의 공휴일에 관한 연구를 인형극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했을때 가슴이 찡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알고 얼마나 연구 한 적이 있는지? 옛속담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에 감명

한국 교육의 방향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현실적인 학교교육의 목표가 된지 오래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입신출세'를 자식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관념을 자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교육은 자녀의 개성, 취미, 능력을 무시하고 입신위주의 교육으로 달리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교육은 학생들의 개인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보여진다. 즉 현장중심, 이동중심, 생활중심 교육이 그것일 것이다.

한국 교육도 일상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 발표회, 음악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활동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박수갈채 속에 태권도 시범

어린이 시범단은 한국전통무도인 국기태권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심신수련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수양과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시간연마한 기본동작, 품새, 약속겨루기, 응용겨루기, 격파, 호신술 및 창작적인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주어진 시간내에 체계적으로 보여줘 태권도의 가치성과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부응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면,

첫째, 한·미우호증진 및 국위선양을 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일조했다는 점.

둘째, 국기태권도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노력함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적 무도·스포츠로서의 인식을 확대시켰다는 점.

셋째, 한국어린이를 대표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린이의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었다는 점.

네째, 개인 각각에게는 미국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3개도시 12차례 순회시범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 시범단이 보여준 공식석상의 태도와 시범의 진행 질서 그리고 훌륭한 시범과 확고한 자세는 시범을 지켜보는 주위 어른들을 안

심시킬 정도로 미더웠고 의연했다.

격려와 환영 박수갈채가 순회하는 지역마다 우리를 맞아들였다.

매스컴의 요란한 기사와 T.V.방영은 고국을 떠난 우리 교민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시범이 끝난 후에 깨어진 송판을 들고와 어린이 시범단들에게 싸인을 신청하는 모습이나, 어느 한국 교민중 한분의 어머니께서는 이제부터는 우리아이가 한국인이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평소 어린이 시범단 단원들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천진난만하고 장난스러운 어린이들이었으나 이와같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복정장의 앞가슴에 붙어있는 태극마크가 그들로 하여금 뚜렷한 이념과 국가관을 지니게 하여 예의와 절도있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한 것 같다.

끝으로 어린이 시범단에게 '작은 大使'라는 호칭을 붙여주면서 환호해 주신 교포여러분과 태권도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미동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특히 국가대표어린이 시범단을 초청해 주신 미국 아시아소사이 어티 관계자 여러분과 체류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도와주신 오성호선생님, 케이트양에게 감사드립니다. **태권**



시범단 어린이 여행일기

“외국에 나오니 비로소 조국이 소중하고 그리워졌어요”

〈출발에서 LA까지〉

—김호정

이번에 사범님과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태권도 시범을 하고왔다.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또 우리가 시범기간 중에 보고 들은 것들과 실제생활한 것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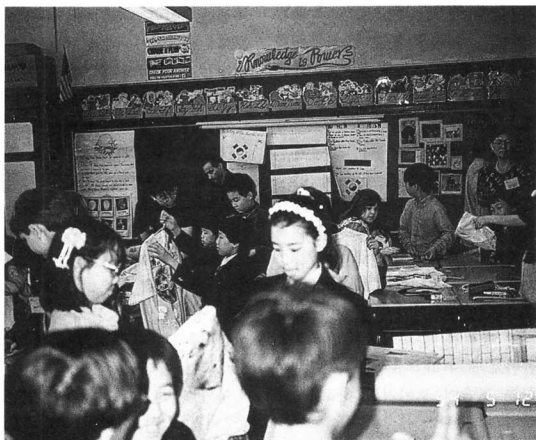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값진 것이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출발하였다. 설레이는 마음도 잠시, 곧 LA에 도착하여 숙소로 향했다. 처음 비행기를 타는 친구들이 많아 이것저것 두리번 거리느라 다들 피곤한 것 같았다. 내일 시범을 위해 일찍

잠을 청했다. 아침 일찍 한인학 교로 시범을 하러 갔다. 그곳 교장선생님은 한국분이셨다. 외국에서 훌륭한 교포를 만나니 기분이 좋았다.

무대가 될 만한 곳이 없어서 실외복도에서 하는데 햇빛이 눈에 비쳐 조금 불편했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생겼고, 너무 잘 하려고하니 오히려 어색한 동작이 나오는 것 같았다. 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박수를 주셨고 우린 더욱 힘이나서 멋진 시범을 보일 수가 있었다. 이 곳의 교포들에게 한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해 줄 수 있어 기뻐다.

시범을 마치고 LA KOREA 타운에 갔다. 미국에 정말 한국 도시와 똑같은 곳이 있을까 궁금했다. 이런 궁금증은 한국어로 된 표지판을 보고 곧 풀려졌다. 차를 타고 KOREA타운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수많은 한국어 표지판이 있었다. 수 많은 영어 속에서 이들 한국어 표지판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 곳에서 한국전통음식을



미국의 국민학교 수업에 함께 참여한 시범단



뉴욕의 아시아 소아이머티 본부에서 시범을 마치고 그곳의 임원들과 함께

먹고 숙소로 돌아왔다. 외국에 나와보니 비로소 조국이 소중하고 그리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들과 친구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한참동안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미국에서 맞은 스승의 날〉

-김훈석

미국에서 스승의 날을 맞았다. 그래서 우리 시범단 일동들은 한명한명씩 카드 두 장에다가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적어서 사범님과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드리고 스승의 날 노래까지 불렀다.

주장이 나와 선물을 증정했다. 사범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셨으며, 교감선생님께서 '남은 미국생활을 열심히 잘 마치자'라는 말씀을 하셨다.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라 자꾸 학교에 계시는 담임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 교과선생님들 생각이났다.

〈꿈의 나라 디즈니랜드〉

-이지은

5월 16일 시범단은 꿈에 그리던 디즈니랜드로 출발하였다. 먼저 델타항공기로 2시간 정도 간 뒤 달라스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 탔다. 3시간정도 가니 LA에 도착했다. 버스로 1시간쯤 더 가니 디즈니랜드가 나왔다. 이 곳은 월트 디즈니가 만화를 제작하여 번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만든 '놀이동산'이라고 한다.

처음에 해적선을 탔는데 안에 있는 인형들의 모습이 무척 협상궁게 생겨서 깜짝 놀랐다. 다음에는 '유령의 집'에 들어갔다. 으스스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갑자기 우리가 서 있던 땅이 아래로 내려갔다.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정해진 '유령의 집' 내부를 돌아보게 된다. 유령들이 회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했다. '유령의 집'을 돌아보는 중간에 거울이 있는데 나와 이소영사이에 유령이 앉아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추어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 놀라 부둥켜 안고 무서워서 벌벌떨며 있었다. 그러자 곧 유령은 사라졌다. 우리 시범단들은 그 외에도 잠수함, 기관차 등 여러 놀이기구를 타고 신나게 놀았다.

〈팬레터 친구〉

-이재한

뉴욕에서 오랫동안 편지로 사귀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편지로만 서로 교분을 가졌을 때에는 마냥 멀리있는 친구로 밖에 느끼지 못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머리카락과 피부색이 약간 다른뿐 생각이나 행동하는 모습은 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남을 먼저 생각해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은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어린이와 거의 흡사했다. 아마 이와같은 마음때문에 한국인인 나와 미국인인 친구는 말이 통하지 않지만, 친한 친구로 느끼게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만난 친구들의 학교는 PS213국민학교인데 이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곳의 국민학교에도 편지를 주고 받는 친구가 많다.

편지친구들과 서로를 좀 더 많이 알기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동안 정말로 정이 들어 막상 헤어질 때에는 눈물까지 나올 정도로 괴로웠다.

아마 이번 편지친구와의 만남은 내가 커서 성인이 되더라도 마음 속의 영원한 친구로 계속 남을 것이다. **END**

별이 되어 보자

노원호

먼 옛날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하늘에 별이 있었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제각기 고운 이름을 달고
만나는 사람마다
빛과 꿈을 건네 주었지.

만약
하늘에 별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별은 하늘에서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으로
이 세상 모든 이의 꿈이 되고 있었지.

우리도 이젠
세상을 반짝일 별이 되어 보자.

만나는 사람마다
-별이 되었구나.
-별이 되었구나.
이 한 마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별이 되어 보자.

그래서 가슴마다 반짝이는
불씨를 보듬고
우리도 작은 별이 되어 보자.

행사 기록

국 제 대회

IOC 100주년기념 서울 국제태권도 선수권대회 (4.22~23, 장충체육관)

(여자부)

▲ 핀급

- 1위 : 김진성(한체대)
- 2위 : Alison Brooks(호주)
- 3위 : Amelia M. Melero
(스페인)
- Sung Ah Park(미국)

▲ 플라이급

- 1위 : 최재숙(용인대)
- 2위 : Olga G. Santamaria
(스페인)
- 3위 : Sharon L. Hough(미국)
- Christina Falieros(호주)

▲ 밴텀급

- 1위 : Lauren Burns(호주)
- 2위 : 김은숙(용인대)
- 3위 : Diane Murray(미국)
- Elisabeth D. Cazorla
(스페인)

▲ 페더급

- 1위 : Idoia J. Saragueta
(스페인)
- 2위 : Darcy De Kriek(미국)
- 3위 : Donna Scherp(미국)
-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 1위 : 박경숙(경희대)
- 2위 : Jay Jaye(호주)
- 3위 : Ana Fernandez(스페인)
- Delores M. Johnson
(미국)

▲ 웰터급

- 1위 : Lydia Zakkas(호주)
- 2위 : Elena B. Morales
(스페인)
- 3위 : 김소연(경성여실고)
- Shana Schwer(미국)

▲ 미들급

- 1위 : 이선희(용인대)
- 2위 : Barbara Kunkel(미국)
- 3위 : Ireane R. Arevalo
(스페인)
- Jane Bellamy(호주)

▲ 헤비급

- 1위 : 정명숙(해성여고)
- 2위 : Robin Umphrey(미국)
- 3위 : Helen Fackrell(호주)
- Olga Marcos(스페인)

(남자부)

▲ 핀급

- 1위 : 석운용(용인대)
- 2위 : Lai V. Vo(미국)
- 3위 : Jesus J. Alcaniz
(스페인)
- Sacha Ruch(호주)

▲ 플라이급

- 1위 : Javier A. Sesmilo
(스페인)
- 2위 : Angel Aranzamendi
(미국)
- 3위 : Nicolas Tsioulos(호주)
- 유상문(한체대)

▲ 밴텀급

- 1위 : 조진호(한체대)
- 2위 : Gabriel E. Perez(스페인)
- 3위 : Robert Leach(미국)
- Robert Pace(호주)

▲ 페더급

- 1위 : David Kang(미국)
- 2위 : 김동현(경희대)
- 3위 : Clint Darmanin(호주)
- Francisco Z. Couce
(스페인)

▲ 라이트급

- 1위 : 박세진(영천시청)
- 2위 : Marcos C. Corredoira
(스페인)
- 3위 : John Collinson(호주)
- George Bell(미국)

▲ 웰터급

- 1위 : Berty Collinson(호주)
- 2위 : Jose J. Marquez
(스페인)
- 3위 : 김동민(한체대)
- Garth A. Cooley(미국)

▲ 미들급

- 1위 : John Wright Diaz
(스페인)
2위 : Warren Hansen(호주)
3위 : Peter Bardatsos(미국)
정주석(상무)

▲ 헤비급

- 1위 : 하태경(춘천군청)
2위 : Dilmiro Perez(스페인)
3위 : Shane Thatcher(호주)
George Weissfish(미국)

국 내 대회

'94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4.11~16, 올림픽 제1체육관)

(중등부)

▲ 핀급

- 1위 : 손영복(당곡중)
2위 : 구유희(판교중)
3위 : 김정훈(사당중)
김성식(조선대부속중)

▲ 플라이급

- 1위 : 조익래(용곡중)
2위 : 이동연(효성중)
3위 : 이규영(효성중)
최성호(당곡중)

▲ 밴텀급

- 1위 : 김선률(이수중)
2위 : 박성현(동성중)
3위 : 김진수(구월중)
최원석(경수중)

▲ 페더급

- 1위 : 정세영(동성중)
2위 : 김명운(단대부중)
3위 : 김강훈(성남서중)
정홍수(은행중)

▲ 라이트급

- 1위 : 윤현식(단대부중)

- 2위 : 황은식(대동중)

- 3위 : 이주한(문성중)

- 심정언(용곡중)

▲ L-웰터급

- 1위 : 남연식(태성중)

- 2위 : 정우열(여수중)

- 3위 : 장세용(오주중)

- 박남석(구월중)

▲ 웰터급

- 1위 : 강대리(서울체중)

- 2위 : 강전길(경일중)

- 3위 : 공대식(단대부중)

- 박만춘(방어진중)

▲ L-미들급

- 1위 : 조원철(부천동중)

- 2위 : 홍춘식(성곡중)

- 3위 : 신원일(경북체중)

- 박천덕(함도중)

▲ 미들급

- 1위 : 윤명철(구월중)

- 2위 : 김민수(동성중)

- 3위 : 천현우(사당중)

- 김태선(풍생중)

▲ L-헤비급

- 1위 : 이권일(효성중)

- 2위 : 문형철(북성중)

- 3위 : 김성훈(대동중)

- 라원학(성남서중)

▲ 헤비급

- 1위 : 홍현욱(여수중)

- 2위 : 이홍권(성남동중)

- 3위 : 김영진(경북체중)

- 신병균(봉양중)

(고등부)

▲ 핀급

- 1위 : 서상훈(천안농고)

- 2위 : 정우학(대전체고)

- 3위 : 오춘제(인천체고)

- 김형구(청주기공)

▲ 플라이급

- 1위 : 박왕기(개금고)

- 2위 : 윤상필(오성고)

- 3위 : 마천국(광양고)

- 박희철(선인고)

▲ 밴텀급

- 1위 : 백주용(강화고)

- 2위 : 조만희(동성고)

- 3위 : 박광룡(대전체고)

- 윤석용(대전체고)

▲ 페더급

- 1위 : 하태호(서울체고)

- 2위 : 지종남(대전체고)

- 3위 : 김영진(풍생고)

- 문정훈(부산체고)

▲ 라이트급

- 1위 : 정환백(태성고)

- 2위 : 양현모(전북체고)

- 3위 : 김기철(인천체고)

- 한 훈(인천북공고)

▲ 웰터급

- 1위 : 방영선(리라공고)

- 2위 : 고도형(남주고)

- 3위 : 박동현(송곡고)

- 류 권(광주체고)

▲ 미들급

- 1위 : 남규영(부산체고)

- 2위 : 강 훈(한성고)

- 3위 : 함명수(영북중고)

- 이진영(부산체고)

▲ 헤비급

- 1위 : 심윤섭(정명고)

- 2위 : 하세웅(시온고)

- 3위 : 최희성(광주체고)

- 유현규(천안농고)

(일반부)

▲ 핀급

- 1위 : 강정훈(춘천군청)

- 2위 : 김지환(명치대)

- 3위 : 양정인(춘천군청)

▲ 플라이급

- 1위 : 김홍수(한라전문대)
- 2위 : 김남수(충호체육관)
- 3위 : 정해창(청도체육관)
최장혁(청명체육관)

▲ 뱀텀급

- 1위 : 강근배(한라전문대)
- 2위 : 최근철(대전실전)
- 3위 : 공용희(동아체육관)
김연중(대전실전)

▲ 페더급

- 1위 : 박광현(부산시협회)
- 2위 : 엄익호(대전실전)
- 3위 : 고태관(한라전문대)
김광주(부산시협회)

▲ 라이트급

- 1위 : 현정훈(한라전대)
- 2위 : 명재일(대전실고)
- 3위 : 박영일(참피온체육관)
박종순(명지대)

▲ 웰터급

- 1위 : 김광호(대전실전)
- 2위 : 전재혁(대전실전)
- 3위 : 김현진(서부체육관)
윤태호(참피온체육관)

제4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 대회 (4.26~29, 88체육관)

(남고부)

▲ 핀급

- 1위 : 전형준(선인고)
- 2위 : 임태형(전북체고)
- 3위 : 하정훈(동성고)
강찬규(인천북공고)

▲ 플라이급

- 1위 : 박희철(선인고)
- 2위 : 박진열(동성고)
- 3위 : 박철광(단국공고)
황병련(리라공고)

▲ 뱀텀급

- 1위 : 김남수(송곡고)
- 2위 : 강성권(서울체고)
- 3위 : 김선웅(태성고)
김차성(선인고)

▲ 페더급

- 1위 : 하태호(서울체고)
- 2위 : 조일완(동성고)
- 3위 : 임언우(고려고)
원형진(금정고)

▲ 라이트급

- 1위 : 김정수(개금고)
- 2위 : 박진성(남주고)
- 3위 : 김정관(시온고)
정승진(동성고)

▲ 웰터급

- 1위 : 유근무(대전체고)
- 2위 : 승진식(경남체고)
- 3위 : 함명수(영북종고)
최성준(동천고)

▲ 미들급

- 1위 : 마정진(광양고)
- 2위 : 안용준(리라공고)
- 3위 : 김석균(인천북공고)
고성범(서울체고)

▲ 헤비급

- 1위 : 문대성(리라공고)
- 2위 : 문용철(인천체고)
- 3위 : 유환국(송곡고)
김정민(서울체고)

(여고부)

▲ 핀급

- 1위 : 장정은(송곡고)
- 2위 : 최영아(청구상고)
- 3위 : 김보인(김제북고)
이운정(고양여고)

▲ 플라이급

- 1위 : 박현기(고양종고)
- 2위 : 윤버들(국체고)
- 3위 : 박미연(태원고)
김영미(은평여고)

▲ 뱀텀급

- 1위 : 조선미(경성여실고)
- 2위 : 이선영(송곡고)
- 3위 : 전영식(천안여고)
유미란(인천북공고)

▲ 페더급

- 1위 : 오은아(고양종고)
- 2위 : 이정숙(태원고)
- 3위 : 이지은(리라공고)
이은정(김제북고)

▲ 라이트급

- 1위 : 전미영(영북종고)
- 2위 : 김미영(문산종고)
- 3위 : 이해경(고양종고)
서미경(배성여고)

▲ 웰터급

- 1위 : 조미례(리라공고)
- 2위 : 정진영(시온고)
- 3위 : 한은진(혜성여고)
곽태정(인천체고)

▲ 미들급

- 1위 : 박선혜(고양여고)
- 2위 : 안근아(김제북고)
- 3위 : 최민정(송곡고)
정경선(리라공고)

▲ 헤비급

- 1위 : 김윤경(경성여고)
- 2위 : 정혜옥(인천체육실업고)
- 3위 : 이선민(문산종고)
황동옥(안일여고)

(남고부 단체전)

▲ 통합플라이급

- 1위 : 황병련(리라공고)
- 2위 : 손민호(송곡고)
- 3위 : 정민철(시온고)
김용범(경남체고)

▲ 통합페더급

- 1위 : 황동기(리라공고)
- 2위 : 박정혁(송곡고)
- 3위 : 김재진(시온고)

형성호(경남체고)

▲ 통합웰터급

1위 : 안용준(리라공고)

2위 : 박동현(송곡고)

3위 : 정재광(시온고)
승진식(경남체고)

▲ 통합헤비급

1위 : 문대성(리라공고)

2위 : 방효성(송곡고)

3위 : 하세웅(시온고)
김국진(경남체고)

▲ 무제한급

1위 : 방영선(리라공고)

2위 : 정 균(송곡고)

3위 : 김정관(시온고)
김신영(경남체고)

(여고부 단체전)

▲ 통합플라이급

1위 : 조지미(경성여실고)

2위 : 조옥경(리라공고)

3위 : 장정은(송곡고)
김보인(김제북고)

▲ 통합페더급

1위 : 배은정(경성여실고)

2위 : 함진희(리라공고)

3위 : 이선영(송곡고)
이은정(김제북고)

▲ 통합웰터급

1위 : 강해은(경성여실고)

2위 : 이지은(리라공고)

3위 : 신현순(송곡고)
손은경(김제북고)

▲ 통합헤비급

1위 : 김윤경(경성여실고)

2위 : 서정화(리라공고)

3위 : 최민정(송곡고)
안근아(김제북고)

▲ 무제한급

1위 : 김소연(경성여실고)

2위 : 조미례(리라공고)

3위 : 정현주(송곡고)

곽미화(김제북고)

(단체상)

▲ 최우수선수상

문대성(리라공고)

▲ 우수선수상

하태호(서울체고)

김윤경(경성여실고)

▲ 장려상

경남체고(남)

송 곡 고(여)

▲ 감투상

광 양 고(남)

천안여고(여)

▲ 지도상

박영수(리라공고)

양성관(경성여실고)

박운서(선인고)

이재봉(송곡고)

제15회 어린이태권왕
전국 국민학교 대회
(5.4~5, 국기원)

(남자부)

▲ 핀급

1위 : 조중현(서원국)

2위 : 권혁만(신흥국)

3위 : 박상현(석수국)
김조진(광희국)

▲ 플라이급

1위 : 배병철(태평국)

2위 : 김익중(봉림국)

3위 : 임근용(호암국)
최용호(호암국)

▲ 밴텀급

1위 : 이은섭(태평국)

2위 : 박양배(중앙국)

3위 : 박민열(우산국)
박승섭(마장국)

▲ 페더급

1위 : 이재현(여천서국)

2위 : 채승호(광희국)

3위 : 유재형(서원국)
박동석(수진국)

▲ 라이트급

1위 : 손준길(울전국)

2위 : 한경수(석수국)

3위 : 박상일(쌍문국)
김신기(신흥국)

▲ L-웰터급

1위 : 김진옥(성남제2국)

2위 : 하성훈(지산국)

3위 : 김종식(단대국)
김군식(홍왕국)

▲ 웰터급

1위 : 임지광(광희국)

2위 : 최대식(문성국)

3위 : 황광영(문덕국)
장민영(문의국)

▲ L-미들급

1위 : 서상립(신흥국)

2위 : 이희형(부춘국)

3위 : 김일구(근화국)
김진혁(박달국)

▲ 미들급

1위 : 전영인(거여국)

2위 : 강호웅(우산국)

3위 : 박진상(문덕국)
강경훈(미금국)

▲ L-헤비급

1위 : 차봉석(광희국)

2위 : 정연환(우산국)

3위 : 오근학(태평국)
김 집(강덕국)

▲ 헤비급

1위 : 차동선(석수국)

2위 : 지영환(부춘국)

3위 : 민병식(마천국)
김민석(아양국)

(여자부)

▲ 핀급

- 1위 : 김나희(상원국)
- 2위 : 전일량(태평국)
- 3위 : 정은경(신흥국)
이승희(상수국)

▲ 플라이급

- 1위 : 황경애(양정국)
- 2위 : 진효순(소양국)
- 3위 : 김혜진(부림국)
이지연(신일국)

▲ 밴텀급

- 1위 : 이자미(상수국)
- 2위 : 박혜선(개군국)
- 3위 : 이선영(삼성국)
강현순(면목국)

▲ 페더급

- 1위 : 이지혜(지장국)
- 2위 : 송윤희(상수국)
- 3위 : 김미지(삼성국)
박연미(충무국)

▲ 라이트급

- 1위 : 함미란(양정국)
- 2위 : 서은미(포곡국)
- 3위 : 이슬기(신산국)
김민희(광릉국)

▲ L-웰터급

- 1위 : 장은숙(설봉국)
- 2위 : 김은희(보광국)
- 3위 : 박민정(광희국)
한경은(이천국)

▲ 웰터급

- 1위 : 조선미(성남동국)
- 2위 : 이미경(서원국)
- 3위 : 채혜경(고강국)
이보영(오남국)

▲ L-미들급

- 1위 : 임정아(신일국)
- 2위 : 이유허(탑동국)
- 3위 : 조수현(태평국)
김혜란(수진국)

▲ 미들급

- 1위 : 유경란(상수국)
- 2위 : 최민경(호반국)
- 3위 : 안소희(수창국)
박설희(은천국)

▲ L-헤비급

- 1위 : 유연화(상수국)
- 2위 : 김혜미(은천국)
- 3위 : 이은선(광릉국)

▲ 헤비급

- 1위 : 민재희(강덕국)
- 2위 : 정혜경(삼성국)
- 3위 : 배은주(송죽국)
이지은(강덕국)

**제21회 전국대학개인
대회 겸 제4회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 대회**
(5.6~7, 수원실내체육관)

(남자부)

▲ 핀급

- 1위 : 최만용(한체대)
- 2위 : 정재필(동아대)
- 3위 : 최용훈(동아대)
박동중(충남대)

▲ 플라이급

- 1위 : 윤종일(동아대)
- 2위 : 고동완(한체대)
- 3위 : 이정훈(군산대)
석운용(용인대)

▲ 밴텀급

- 1위 : 장대순(한체대)
- 2위 : 윤희식(경희대)
- 3위 : 이임수(동아대)
조진호(한체대)

▲ 페더급

- 1위 : 안홍엽(용인대)
- 2위 : 유용진(동아대)
- 3위 : 김병욱(한체대)

박민섭(조선대)

▲ 라이트급

- 1위 : 신경수(청주대)
- 2위 : 이상훈(경희대)
- 3위 : 천현옥(경원대)
이재성(충남대)

▲ 웰터급

- 1위 : 장종오(용인대)
- 2위 : 김경훈(한체대)
- 3위 : 최승길(용인대)
박재홍(동아대)

▲ 미들급

- 1위 : 양원철(청주대)
- 2위 : 김광수(한체대)
- 3위 : 장용중(경희대)
빙원철(한체대)

▲ 헤비급

- 1위 : 김형태(조선대)
- 2위 : 박형래(용인대)
- 3위 : 하종선(조선대)
심재섭(단국대)

(여자부)

▲ 핀급

- 1위 : 김진성(한체대)
- 2위 : 김경희(인천전문대)
- 3위 : 양소희(한체대)
윤영경(용인대)

▲ 플라이급

- 1위 : 이순영(용인대)
- 2위 : 유수진(경희대)
- 3위 : 윤덕희(인천전문대)
최재숙(용인대)

▲ 밴텀급

- 1위 : 원선진(경희대)
- 2위 : 김은숙(용인대)
- 3위 : 유수미(용인대)
김경애(용인대)

▲ 페더급

- 1위 : 이승민(경희대)
- 2위 : 진용순(한체대)

3위 : 김미정(단국대)
김미선(인천전문대)

▲ 라이트급

1위 : 진혜윤(경희대)
2위 : 박정희(한체대)
3위 : 김옥남(성신여대)
박경숙(경희대)

▲ 웰터급

1위 : 김은이(경희대)
2위 : 신은정(용인대)
3위 : 조향미(경희대)
정윤경(상명여대)

▲ 미들급

1위 : 양춘희(용인대)
2위 : 박은선(경희대)
3위 : 이선희(용인대)
이용화(용인대)

▲ 헤비급

1위 : 정명숙(경희대)
2위 : 박정숙(용인대)
3위 : 추수연(용인대)
라명숙(동명전문대)

**'94년도 전국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5.19~20, 국기원)

▲ 핀급

1위 : 최영아(청구상고)
2위 : 정재은(자양중)
3위 : 주윤숙(고양여중고)
이정윤(신갈고)

▲ 플라이급

1위 : 박현기(고양중고)
2위 : 양소희(한체대)
3위 : 윤송희(성일상업고)
김병희(은광여고)

▲ 밴텀급

1위 : 함진희(리라공고)
2위 : 최윤희(자양중)
3위 : 이선희(고양중)

유미란(인천북공고)

▲ 페더급

1위 : 윤명숙(상명여대)
2위 : 오은하(고양중고)
3위 : 신동선(성신여대)
장은정(인천체고)

▲ 라이트급

1위 : 강해은(경성여실고)
2위 : 전미영(영북중고)
3위 : 강광숙(상명여대)
이현희(리라공고)

▲ 웰터급

1위 : 조미례(리라공고)
2위 : 강혜진(부평여상)
3위 : 김수현(리라공고)
정윤경(상명여대)

▲ 미들급

1위 : 임병은(태원고)
2위 : 신경현(문산중고)
3위 : 최지은(경성여실고)
이은주(성신여대)

▲ 헤비급

1위 : 김윤경(경성여실고)
2위 : 김태희(성신여대)
3위 : 권지희(용곡중)
서정화(리라공고)

**제21회 한국중고태권도
연맹회장기대회**
(5.29~6.3, 잠실학생체육관)

(남고부)

▲ 핀급

1위 : 김덕훈(풍생고)
2위 : 이기철(개금고)
3위 : 서상훈(천안농고)
김수연(광주체고)

▲ 플라이급

1위 : 박왕기(부산개금고)
2위 : 이순태(인천체고)
3위 : 김철민(광주체고)

조승원(풍생고)

▲ 밴텀급

1위 : 정대영(동성고)
2위 : 박정혁(송곡고)
3위 : 김차성(선인고)
홍범석(시온고)

▲ 페더급

1위 : 김영진(풍생고)
2위 : 김민환(충남체고)
3위 : 이한성(송곡고)
오지훈(인천북공고)

▲ 라이트급

1위 : 최태호(선인고)
2위 : 신원범(서울체고)
3위 : 이도주(풍생고)
정환백(태성고)

▲ 웰터급

1위 : 송진식(경남체고)
2위 : 고성석(충남체고)
3위 : 장우영(군산중앙고)
황경범(송림고)

▲ 미들급

1위 : 안용준(리라공고)
2위 : 최형민(영북종합고)
3위 : 이동욱(남주고)
마정진(광양고)

▲ 헤비급

1위 : 차용희(동성고)
2위 : 문대성(리라공고)
3위 : 이호득(영북종합고)
문재성(제주제일고)

(여고부)

▲ 핀급

1위 : 김보인(김제북고)
2위 : 장정은(송곡고)
3위 : 최영아(청구상고)
김진숙(인천체고)

▲ 플라이급

1위 : 문경애(시온고)
2위 : 최정은(고양중고)

3위 : 고승자(충북체고)

윤버들(국제고)

▲ 밴텀급

1위 : 이선영(송곡고)

2위 : 함진희(리라공고)

3위 : 김병희(은광여고)

조재영(배정여상)

▲ 페더급

1위 : 이지은(리라공고)

2위 : 서명숙(천안여고)

3위 : 오은하(고양중고)

주혜원(효원고)

▲ 라이트급

1위 : 채수진(혜성여고)

2위 : 강해은(경성여실고)

3위 : 전기숙(인천북공고)

이해경(고양중고)

▲ 웰터급

1위 : 조미례(리라공고)

2위 : 김혜리(고양중고)

3위 : 강혜진(부평여상)

김소연(경성여실고)

▲ 미들급

1위 : 신경현(문산중고)

2위 : 이희영(고양중고)

3위 : 임병은(태원고)

박선희(고양여중고)

▲ 헤비급

1위 : 김윤경(경성여실고)

2위 : 정혜옥(인천체고)

3위 : 이선민(문산중고)

송현정(배정여상)

(남중부)

▲ 핀급

1위 : 명재진(풍생중)

2위 : 신화강(청주중)

3위 : 손영복(단곡중)

김주철(한성중)

▲ 플라이급

1위 : 김재훈(광주문성중)

2위 : 김진모(광주체육중)

3위 : 김정훈(사당중)

노충균(부천중)

▲ 밴텀급

1위 : 손우락(매명중)

2위 : 손호형(쌍문중)

3위 : 김진수(구월중)

최광명(관교중)

▲ 페더급

1위 : 정세영(동성중)

2위 : 김명운(단대사대중)

3위 : 정홍수(성남은행중)

김재관(경수중)

▲ 라이트급

1위 : 김의철(광주문성중)

2위 : 이광훈(영천중)

3위 : 홍운표(풍생중)

전재현(성남은행중)

▲ L-웰터급

1위 : 심정언(용곡중)

2위 : 장세웅(오주중)

3위 : 박남석(인천구월중)

이근호(문일중)

▲ 웰터급

1위 : 엄광흠(성남은행중)

2위 : 김준모(광주체육중)

3위 : 이동훈(용곡중)

강대리(서울체육중)

▲ L-미들급

1위 : 길동균(한성중)

2위 : 조원철(부천동중)

3위 : 문도영(인천관교중)

유지훈(성남은행중)

▲ 미들급

1위 : 공대식(단곡중)

2위 : 김영정(단곡중)

3위 : 김종민(광주체고)

김대선(풍생중)

▲ L-헤비급

1위 : 전만희(풍생중)

2위 : 최낙중(청주중)

3위 : 이태경(덕원중)

한전민(당곡중)

▲ 헤비급

1위 : 문형철(광주북성중)

2위 : 이정민(구월중)

3위 : 장만식(당곡중)

이권일(효성중)

(여중부)

▲ 핀급

1위 : 이진영(자양중)

2위 : 안정아(대원여중)

3위 : 박경은(안서중)

정하나(부흥중)

▲ 플라이급

1위 : 김경희(쌍문중)

2위 : 임계화(자양중)

3위 : 김희정(수유여중)

박소영(오금중)

▲ 밴텀급

1위 : 윤성희(당곡중)

2위 : 오성숙(안서중)

3위 : 박은희(은광여중)

김태정(수유여중)

▲ 페더급

1위 : 양은정(주암중)

2위 : 정재은(자양중)

3위 : 황지현(만수여중)

서현옥(고양여중)

▲ 라이트급

1위 : 전유미(봉의여중)

2위 : 전남수(경수중)

3위 : 신성분(용곡중)

김하나(신암중)

▲ L-웰터급

1위 : 오정희(쌍문중)

2위 : 김희자(신암중)

3위 : 강전옥(자양중)

정윤나(용곡중)

▲ 웰터급

1위 : 최윤희(자양중)

- 2위 : 이선희(고양중)
3위 : 김효민(정신여중)
민보영(전농여중)

▲ L-미들급

- 1위 : 강부경(대원여중)
2위 : 이윤진(백석중)
3위 : 장지원(상신중)
박상미(김제여중)

▲ 미들급

- 1위 : 이세나(자양중)
2위 : 정혜현(신암중)
3위 : 김옥선(대원여중)
주지혜(만수여중)

▲ L-헤비급

- 1위 : 김효경(신암중)
2위 : 조영란(전동중)
3위 : 조양희(김제여중)
권선미(자양중)

▲ 헤비급

- 1위 : 권지희(용곡중)
2위 : 김미정(자양중)
3위 : 김현채(대원여중)

(단체성적)

▲ 여중부

- 1위 : 자양중학교
2위 : 쌍문중학교
3위 : 신암중학교
감투상 : 대원중학교
최우수선수상 : 최윤희(자양중)
지도상 : 윤용근코치(자양중)

▲ 여고부

- 1위 : 리라공업고등학교
2위 : 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3위 : 송곡고등학교
감투상 : 문산종합고등학교
최우수선수상 : 조미례(리라공고)
지도상 : 박영수코치(리라공고)

▲ 남중부

- 1위 : 풍생중학교
2위 : 광주문성중학교
3위 : 단대사대부속중학교
감투상 : 성남은행중학교
장려상 : 광주북성중학교
최우수선수상 : 전만희(풍생중)
지도상 : 이경배(풍생중)

▲ 남고부

- 1위 : 풍생고등학교
2위 : 동성고등학교
3위 : 리라공업고등학교
감투상 : 개금고등학교
장려상 : 선인고등학교
최우수선수상 : 김영진(풍생고)
지도상 : 강선장(풍생고)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5.28~30, 광주조선대체육관)

▲ 핀급

- 1위 : 대현우(전남영광중)
2위 : 김성식(광주조대부중)
3위 : 이상필(인천부흥중)
정우대(대전체육중)

▲ 플라이급

- 1위 : 김재훈(광주문성중)
2위 : 정용조(경기은행중)
3위 : 홍철락(인천구월중)
이정대(충남예산중)

▲ 밴텀급

- 1위 : 이진범(충남천안북중)
2위 : 정광채(경기태성중)
3위 : 강창호(광주북성중)
박석환(대구경일중)

▲ 페더급

- 1위 : 김덕률(전남순천이수중)
2위 : 정명진(제주대정중)
3위 : 백은석(강원철원중)

김정기(대전체육중)

▲ 라이트급

- 1위 : 김의철(광주문성중)
2위 : 김정일(부산덕원중)
3위 : 엄현철(대구청구중)
김동언(제주오현중)

▲ L-웰터급

- 1위 : 김지훈(서울한성중)
2위 : 김대환(경남방어진중)
3위 : 이주환(광주문성중)
정우열(전남여수중)

▲ 웰터급

- 1위 : 이재석(강원진광중)
2위 : 정동혁(경북홍해중)
3위 : 공대식(서울단대부중)
이원희(제주중앙중)

▲ L-미들급

- 1위 : 박천덕(부산항도중)
2위 : 장택상(서울자양중)
3위 : 전효연(광주용봉중)
이재호(인천효성중)

▲ 미들급

- 1위 : 김민수(서울동성중)
2위 : 김재준(충북청주중)
3위 : 김규연(인천효성중)
전명기(전남수북중)

▲ L-헤비급

- 1위 : 구범모(충북사대부중)
2위 : 한전민(서울당곡중)
3위 : 강창민(광주북성중)
강창균(전북고창남중)

▲ 헤비급

- 1위 : 천희라(경남방어진중)
2위 : 이수욱(충남대천중)
3위 : 이석훈(부산금성중)
홍현욱(전남여수중)

제29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6.13~17, 부산구덕체육관)

(고등부)

▲1위: 풍생고(김인동, 김영진, 조화연, 이동주, 나덕준)

▲2위: 송곡고(김남수, 정 군, 이한성, 이태민, 방효성)

▲3위: 성동고(김준의, 박문수, 이창호, 이상권, 박동순)

▲감투상: 부산체고(박기호, 최남규, 전유곤, 이진영, 남규영)

(대학부)

▲1위: 한체대(김병욱, 김광수, 김동민, 김봉석, 방원철)

▲2위: 청주대(민경환, 양원철, 신경수, 신보현, 이정진)

▲3위: 경희대(김정호, 임영호, 심기선, 김종운, 이상훈)

▲감투상: 관동대(최정훈, 박정우, 엄태호, 하태진, 손용구)

(일반부)

▲1위: 상무(선상준, 김현철, 김태형, 정주석, 박종범)

▲2위: 춘천군청(방영인, 하태경, 김철호, 최기선, 박만성)

▲3위: 대전시동구청(김성진, 김대훈, 김민우, 권태호, 정시호)

고 단 자 승 단

'94년도 1차 고단자 승단심사 합격자 명단 ('94.3.12, 국기원)

<6단>

서울: 윤태기, 양재영, 황 인,

배재복, 양재곤, 장창영

부산: 광영호, 김영식, 조석호,

최재일

광주: 이영매

대전: 송연호, 오노균, 노인호, 황승호, 이형진

경기: 나현주, 이재열, 김정대, 조병일, 권영훈, 김동근

충남: 김태우, 김봉환

경북: 반근식

<7단>

서울: 최종복, 이 연, 강대인, 배희동, 김장일, 신달승,

김성찬, 고명환

경기: 이 현

강원: 양병석

충북: 송충부

충남: 성인원

전남: 설복만

제주: 강중식

<8단>

서울: 이재욱

대구: 최남교

경남: 강인택

사 범

제78기 사범교육 합격자 명단 ('94.3.9~22, 국기원)

서울: 조재현, 임부현, 팽승현,

이태행, 노태형, 김희도,

전경록, 이권원, 이성준,

신영섭, 이정수, 박상신,

주정열, 박영필, 황인택,

성관용, 이영석, 지동록,

황호신, 고철진, 김완수,

문규선, 유인선, 김종성,

강동필, 김영우, 송기석,

이병희, 성영식, 민홍기,

이춘일, 강봉석, 이승영,

정홍주, 구상근, 엄창용,

이의성, 김만태, 박관호,

장영석, 정광원, 최귀남,

오종양, 손종민, 유성종,

이현재, 안준홍, 김대홍,

서재철, 장대욱, 강영수,

박순경

부산: 최성환, 손원하, 서순식,

김인경, 권용대, 이경화,

김용석, 강원식, 강중욱,

신중달, 이현석

대구: 신용수, 성경모, 이용우,

구형근, 함영훈, 이주희,

서동익, 김의진, 정영식,

김종윤, 전성권, 이종철,

이영순, 김시구

인천: 정길상, 전창배, 유병호,

이 운, 유형수, 최경현

광주: 이재달, 오병만, 이상원,

이만옥, 고향순, 조기수

대전: 오영란, 이주영, 박정돈

경기: 정정교, 김지수, 최경문,

김홍태, 황의성, 전기석,

조영남, 양광석, 최병현,

진재성, 유용인, 전상일,

정 철, 박철우, 신동연

강원: 박광민, 김인덕, 최창수

충북: 정 화, 윤남현, 길인홍,

김상래

충남: 오정환, 박철주, 손범승,

현명기, 박현화

전북: 이진호, 이은정, 유종진,

박승균, 이석훈, 신재철,

김창연, 최정란, 이재호,

정금식

전남: 윤영철, 이진욱, 김종필,

오정일, 추순철, 여운상,

김윤곤, 이승춘, 김창호

경북: 광창훈, 이태식, 김영철,

정등화, 이상철, 배기원,

이건원, 이창현, 김홍철,

김대곤, 장문엽
 경남: 남경숙, 김경수, 이준식,
 제부일, 김종육, 최상철,
 김성홍, 이강우, 안정철,
 허진욱, 홍길식, 남경호
 제주: 양수봉
 국방부: 박성준, 임희춘, 이군산,
 이종화, 김종길, 남규현,
 광철우, 한정희
 해외: 이정우

경기도 자

2급 경기지도자 연수과 정 수료자 명단 ('94.4.13~5.3, 국기원)

이성준 이만욱 임부현 김정옥
 조소형 강성환 송기석 백성경
 안창섭 전호석 이범관 신지호
 김영만 박상렬 이한주 정광원

정재관 고성민 박종석 김진해
 박영필 김영옥 최재현 김제하
 남경숙 이창현 한정관 이태식
 김찬우 김지홍 장백규 고봉수
 박병진 정홍주 정정교 광철우
 한정희 이종희 진상철 전기석
 안홍수 정용봉 김상운 박수현
 김동희 추순철 민홍기 박철우
 이삼조 안시욱 이주영 강동필
 박정돈 정준용 구상근 김유석

94년 7~9월

행사 안내

▲ 7월 21일~23일: 94년도 월드컵 태권도 대회
 (케이만 군도 조치타운)

▲ 7월 22일~24일: 제3회 베트남 오픈 국제대회
 (베트남 호치민)

▲ 7월 27일~28일: 제3회 군월게임(러시아 예페르부르크)

▲ 8월 5일~19일: 중국 시범(연길, 북경, 신천, 천진, 마카오, 홍콩)

▲ 8월 19일~26일: 제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남녀중고대회

· 장소: 잠실학생체육관
 · 주최 및 접수: 중고태권도연맹(562-6597)

▲ 8월 중: 제1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 문의: 국민학교연맹(648-0006)

▲ 8월 26일~27일: 제17회 회장기 전국대학대회

· 장소: 국기원
 · 주최 및 접수: 대학태권도연맹(545-4707)

▲ 9월 1일~14일: 제80기 사범 및 사회체육지도자교육

· 장소: 국기원
 · 자격: 만 20세 이상, 4단 이상
 ·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1부(사진 3×4:

5매)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소정양식) 1부

· 접수: 해당 시도협회(직인날인필)
 · 문의: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568-3341)

▲ 9월 5일~10일: 제3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 장소: 국군체육부대
 · 주최: 국방부
 · 구별: 남자 대학부, 남자 일반부, 군부, 여자부
 · 접수: 대한태권도협회

▲ 9월 17일: 제3차 고단자(6~9단) 승단 심사

· 장소: 국기원
 · 제출서류: 심사신청서 1부(사진 3×2:2매), 주민등록등(초)본 1부, 8, 9단 응심자 이력서 1부 제출
 · 접수처: 대한태권도협회(420-4271~3)

▲ 9월 6일~26일: 제20기 2급 경기지도자 연수

· 교육장소: 국기원 지도자연수원
 · 자격: 4단이상 사범자격 소지자
 · 제출서류: 지원서 1통(소정양식), 주민등록초본 1통,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반명함판 사진(3×4:5매), 대한태권도협회 추천 날인 필.
 · 접수처: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568-3341)

2천년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의 의지 펼친 태권도 웨스티발

IOC 100 주년기념 서울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IOC CENTENARY SEOUL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4.22-23, 장충체육관)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스페인과
차기 올림픽개최국인 미국, 호주 등
4개국이 초청되어 친선 경기로 펼쳐진
이번대회는 오는 2천년 올림픽
종목채택을 위해 IOC프로그램 분과
위원회 위원들을 특별히 초청한
가운데 펼쳐졌다.

▶ 5명의 IOC프로그램분과위원회
위원과 칠레 IOC위원 등 6명의
IOC위원이 대회를 참관했다.



▲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한국선수단

▶ 세계 최강전이라 할 수 있는
뛰어난 경기력을 펼치며 경기
장을 열기로 달아오르게 한
4개국 선수들의 치열한 접전



▶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있는 IOC위원



▲ 한국은 금 9, 은 2, 동 5개로 종합 1위를 달성, IOC컵을 수상했다. 스페인은 2위, 호주는 3위를 차지했다.

20년만에 5명 단체전 경기방식으로 부활 풍생고, 한체대, 상무 최강팀으로 우뚝

제 29 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대회
The 29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6.13-17, 구덕실내체육관)



▲ 대회사를 하고 있는 최세창회장.



▶ 45개팀에서 출전한 선수들과 일선지도자 및 관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회식이 펼쳐졌다.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대회

▲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정문화 부산직할시장, 김차진 부산직할시 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 무제한 5명제로 대전을 펼쳐 선수간, 팀간 치열한 격전이
펼쳐졌다.



▲ 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한체대의 양대승코치가
대한태권도협회 홍종수부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있다.

국제대회 유공자 포상 전수식

(4.27,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전수식에서 제 11 회(여자 4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 11 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국위를 선양한 태권도 한국대표선수단 임원 및 선수들이 훈포장을 받았다.



◀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체육훈장백마장을 받고 있는 송봉섭 대한태권도협회 감사 (제 11 회 세계선수권대회 단장)



▲ 훈포장을 받은 태권도계 인사들이 대한태권도협회 임원과 자리를 함께했다.

제 23 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The 23r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5.28-30, 광주 조선대체육관)

시도 대표선수들이 출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가운데 펼쳐진
소년체전에서는 장래의 국가대표
유망주들이 탄생되었다.



▲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시도 대표선수들이 승리를 향해 힘찬 발차기를 뻗고 있다.



▲ 체급별 최강자가 된 우승자들



▲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광주 문성중의 김의철선수가
강원식 전무이사로부터 트로피를 받고 있다.

‘94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National TKD Championships for
the Newface 1994.
 (4.11-16, 체조경기장)

총 1758명의 선수들이 출전,
 우승의 고지를 향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 중등부 우승자들



▲ 고등부 우승자들

‘94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94 National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5.19-20, 국기원)

195명의 여자선수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신인선수들이 전, 현 국가대표들을
 누르고 정상에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 원발 돌려차기 공격을 시도하는 홍선수



▲ 대회사상 처음으로 전원 여성심판(21명)이 대회를 진행, 호평을 받았다.



△ 제4회 석유화학산업발견대회에서 공중돌아 두발채기 최파를 성공시키고 있다.

제 21 회 전국대학개원대회 결
제 4 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대회
The 21st National Collegiate TKD
Championships and
The Selection of Korean National Player
for the 4th FISU World University TKD
Championships.

(5.6-7, 수원실내체육관)



제 4 회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The 4th National Highschool TKD
Championships for Yong-In Univ.
President's Flag
(4.26-29, 88체육관)



◀ 용인대 김정택총장으로부터 남고부 단체 우승기를 받고 있는
리라공교 박영수교지.

제 15 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The 15th National Primary School TKD
Championships
(5.4-5, 국가원)



△ 미래의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자들인 태권도 꿈나무들



제 21 회
중고연맹회장장기대회
The 21st National
Junior TKD
Championships
for President's Flag.
(5.29-6.3, 잠실학생체육관)



▶ 동성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형제(형 정대영, 동생 정세영)가 나란히 우승, 화제가 되었다.